

한자리 모인 역대 부총리 “韓경제, 중층·복합 위기”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글로벌 격변기’ 정책 방향 의논
“안보·에너지·인구 등 문제 산적”
秋 “범정부 민생 안정대책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남기 전 부총리 등 역대 부총리와 장관들이 21일 한자리에 모였다. 추 부총리와 전직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재경회, 예우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부총리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고영선 KDI 원장대행,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남기 전 부총리 등 역대 부총리·장관 24명과 역대 KDI 원장 7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찾은 역대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추경호(앞줄 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박재완 전 장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24명의 전 부총리와 장관, 7명의 역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밑 빠진 독’으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또다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

으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

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회 회장인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느 해인들 경제위기가 없었겠느냐는 특별히 최근에는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이런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났던 중층적이고도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과거 우리가 큰 어려움을 극복했듯 오늘날 어려움도 기재부, KDI 모두가 힘을 합쳐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우회 회장인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장동력 저하 문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보호무역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내는 유전자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유전자를 끄집어내서 국민 통합 에너지로 삼고 주춧돌을 쌓아간다면 앞으로의 60년도 밝은 역사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투자종목, 맷집은 물론 멘탈도 주시 SNS·뉴스 활용, 리스크 관리 강화”

국민연금 수익 제고 주요계획

국민연금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자금 운용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2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금 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뉴스, SNS 등 비정형데이터 기반의 ‘센티먼트 지수’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가 위기지수 모델링을 강화하고 관리대상 국가를 확대한다. 센티먼트 지수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감정적 요인을 말한다.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투자나 경제여건을 파악하는데 ‘센티멘

트 지수’를 도입한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 중 두 번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 기사를 활용해 가계, 기업 등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뉴스심리지수’를 내놔다.

한은이 도입한 뉴스심리지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뉴스センチメント인덱스(News Sentiment Index)’가 모델이다. 이 인덱스는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16개 신문의 경제기사 어휘를 분석해 채점 경기를 측정해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자주 측정하기 어려운 기존 설문 기반의 소비자 심리 지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안정적 수익 제고’ 연도별 주요 계획

※ 출처: 국민연금공단 중장기 경영목표(2023~2027년)

2023년	TAA 오버레이 도입, 운용전략 고도화 및 다변화
2024년	TAA(전술적 자산 배분) 오버레이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위험 완화 전략 도입 검토 등의 고도화 추진
2025년	리서치 기능 강화 및 운용전략 선진화를 바탕으로 한 신규유형 설정 검토 및 실행 해외채권 쿼터 운용전략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지역별 자산배분 전략 고도화 및 모델 포트폴리오 수립 검토
2026년	글로벌 리서치 기반의 G-MP(Global Equity Model Portfolio) 구성 검토 해외주식 직접투자 전략 확대 및 다변화
2027년	G-MP 커버리지 확대 및 이를 활용한 투자 실행 해외주식 직접투자 전략 고도화



고 설명했다. 정책 입안자 등이 경제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투자에 ‘센티먼트 지수’가 도입되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은 “투자자가 다변화하고 위험자산 비중도 높고 있어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성과

·위험분석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스프레드 기반의 기업 조기경보체계를 구성화하고 재무정보 기반의 조기경보 모델도 도입을 검토한다. 해외채권 통합수탁으로 개선된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외국가별, 섹터별 분석보고서를 활용해 정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내년에 수탁자책임활동 확대에 관한 준법지원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평판위험 예방을 위한 행위점검 및 이해충돌 방지 활동을 내실화한다. 해외사무소 등 내부통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어이 젊은 친구!
가스보일러 안전 확인 했어!?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공급자나 보일러 제조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배기통 이탈 확인!

배기통 찌그러짐 확인!

CO경보기 설치 확인!

소방안전기술원의 제품경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요

위치 및 사업비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5만㎡ 규모
(약 125만평)·약 120조원

내용

- 반도체 4개 공장에서 월 최대 80만장 웨이퍼 생산 능력
- 50개 이상 협력업체 입주해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기대효과

- 약 2만5000명 일자리 창출
- 차세대 반도체 생산 및 상생 생태계 거점 활용

운영시기

2025년 첫 번째 팹 착공·2027년 가동 전망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용수 문제로 여주시와 갈등을 겪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의 중재로 21일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 뉴스시스

용인 클러스터 탄력… SK하이닉스 “메모리 강자 발돋움”

첫 공장 2025년 착공

여주시와 ‘3년 갈등’ 마침내 해소

2027년 4개 공장 중 1기 가동

소부장 협력사 50곳과 상생 협력

D램 점유율 삼성 41%·SK 29%

추격자 제치고 압도적 양강 기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마침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속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는 물론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지연돼왔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용수 허가 등 인허가 문제가 해소되면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닳을 올리게 됐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경기 용인 원삼면 일대 약 415만㎡(약 125만 평) 규모의 부지에 12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팹(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년 초 1기 팹을 착공해 2027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용인 산단 내 총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토지 보상 관련 주민 대립과 용수 공급을 두고 여주시와의 갈등

으로 약 3년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채 착공이 미뤄져 왔다. 7월 예정했던 착공식도 취소됐다.

이날 여주시와의 상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극적 타협을 이뤘다. 올해 상반기 토지 보상도 마무리하면서 지연됐던 사업 일정은 차례로 진행된다. SK하이닉스가 짓는 첫 번째 팹의 경우 2025년 착공, 가동은 2027년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선 SK하이닉스뿐 아니라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50여 곳도 이 산단에 입주하는 만큼 반도체 생태계가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들 국내외 협력업체와의 시너지 창출·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클러스터에서 10년간 총 1조2200억 원을 지원한다. △상생펀드 조성(3000억 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상생프로그램 추진(6380억 원) △공동 연구개발(R&D, 2800억 원) 등을 순차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협력업체들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며 “이 밖에도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도 높아질 수 있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2만5000명 규모의 양질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4개 팹 1만2000명, 지원부서 인력 3000명, 협력업체 8000명, 팹 건설을 위한 건설사 직접 고용 2000명 등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SK하이닉스는 이 클러스터를 통해 반도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 용인을 D램·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과 반도체 상생 생태계 거점으로 삼고 이천, 청주와 함께 3개 축을 이뤄 중장기 성장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 시장조

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매출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40.7%)에 이어 SK하이닉스가 2위(28.8%)를 차지했다. 그 뒤를 미국 마이크론(26.4%)이 추격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천에 3개 팹, 청주에 막 삽을 뜬 M15X를 포함한 4개 팹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용인에 4개 팹

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라며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도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설비와 같은 미래 투자는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도래했을 때 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황과 무관하게 꾸준히 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사업 조성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이차전지 등 13대 주력산업 수출 4%↓

“내년 수출 앞이 안 보인다”

▶1면서 계속

연구원은 반도체 외에도 이차전지, 섬유, 바이오헬스 등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올해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와 조선, 이차전지 등은 상승하지만, 소재산업군에서 단가 하락과 수입 수요 둔화로 1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5.1% 감소할 것으로 봤다.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무역수지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든 연 266억 달러 정도로 예측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국제 경기가 좋지 않고 교역량이 둔화하는 등 통화 긴축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 해제와 일상 회복 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을 변수로 꼽았다.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지난해보다

하락한 90달러대로 예상했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 이행과 수급 여건 악화는 하락 제한 요인으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제 경제 성장 속도 둔화 등 달러 강세가 상승 요인으로 보이지만, 점차 안정세가 예상돼 1320원 내외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저조한 소비심리와 주요 자산가격 하락,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 증가로 제약을 받아 올해와 달리 증가 폭이 2.5%로 축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는 0.3% 감소, 건설투자는 1.6% 증가로 전망했다.

이번 예측은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일상 회복의 전격화를 가정해 예측한 것이다. 제시한 전망치가 상황에 따라서 더 악화할 수도 있고, 더 빨리 개선될 수도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세계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수출 감소가) 지속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쟁력은 계속 유지하는 거로 생각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위주로 수출이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음이 닿는 곳에서
보험이 시작되니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보험이 시작된 곳은
어쩌면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늘 현대해상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음이 **♥** 합니다

H 현대해상

계약 전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 ‘강통전세’ 피해 막는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부터다.

우선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의무를 어기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약 이전의 상황이어서 ‘손해배상 청구’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다. 대신에 정부는 이로써 부당한 계약 체결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브리핑에 참석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임차인이 될 사람이 정당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에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계약 후 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

소액임차인범위 1500만원 상향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올려

개정안에는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세금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알 수 없다. 법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정 심의관은 “향후 여러 사례가 생기며 판례가 구체화될 것”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한 의사가 없으면서, 극단적인 경우로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다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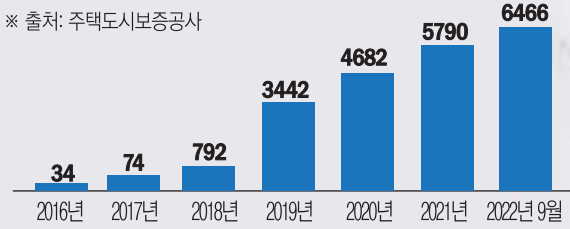
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소액임차인 범위 일괄 1500만원 상향
- 최우선변제금액 일괄 500만원 상향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신설
- 계약서에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 추이 (단위: 억원)

※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 발표 회견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입법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5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서울특별시의 기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정 심의관은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 중위층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임대인이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는 날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특약사항이 추가된다.

그간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어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관리비를 올려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만든다.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더 나아가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이수진 기자 abc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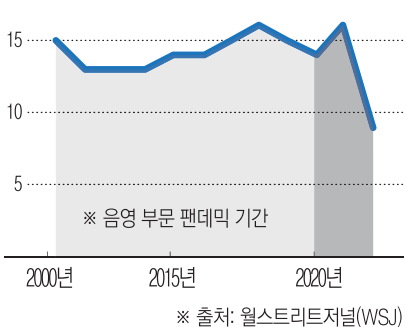
성탄절 지갑 닫는 미국인... 선물 줄이고 기부 덜한다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심리 위축 평균 선물 구매 수 16개→9개 10명 중 4명 “돈 없어 기부 안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미국 소비자들이 인색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연말 개인들의 소액 기부나 성탄절 선물 구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시간대학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가계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업률이 치솟았던 2008년 말~2009년 초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1%인 약 9500만 명이 가계 필수 지출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구매 예정인 크리스마스 선물 평균 개수 (단위: 개)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아파트 임차료나 대출 이자는 늘어난 반면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면서 개인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영향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마이에미에서 세 아이를 둔 한 여성은 “침실 27짜리 아파트 임차료가 2020년 월 1365달러였는데, 올해 봄 2600달러(약 352만 원)로 올랐다”면서 “아이들에게 지

난 몇 년간 여러 개의 작은 선물을 해줬지만, 올해에는 정말 가지고 싶은 선물 한 개만 정하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컨설팅업체 딜로이트가 지난 9월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인은 평균 9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평균 16개 선물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나왔다. 가구당 선물 구매 지출 예상액도 지난해 평균 1463달러에서 1455달러로 소폭 줄어들었다. 금융웹사이트 뱅크레이트가 24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연말연시 쇼핑에 대해 “더 적은 품목을 구매하고 선물도 더 저렴한 것으로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판매 가격을 올렸던 일부 기업들은 연말 재고 관리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에는 큰 폭의 할인을 감당할 수 없

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개인들의 연말연시 기부행렬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빙USA파운데이션에 따르면 매년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기간은 전체 자선 기부금의 20~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올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어나고, 기부금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키바(Kiva)가 응답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가 자금 부족으로, 42%는 기부는 특권층이 해야 하는 것이란 이유로 지난해보다 기부를 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비영리단체 기빙투스데이는 올해 미국 전역에서 500달러 이하 소액 기부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2분기 전체 기부액은 6.2% 증가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8%가 넘는 인플레이션율을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현대차의 ‘아메리카 드림’ “2025년 판매량 100만대”

현대자동차가 2025년 미국 시장에서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 6%대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1일 현대차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주 미국 현지법원에서 열린 국내 투자업계 애널리스트 대상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6%대 목표”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78만7702대(제네시스 포함)를 판매했다.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한 5.2%에 달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58만2000여 대를 판매해 점유율 5.7%를 유지 중이다.

현대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주력 신차의 출시 시점이 교묘하게 맞물리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부품 공급난의 영향을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덜 받아 무난하게 팬데믹 여파를 넘어갔다.

미국 시장 회복세도 가파르다. 현지 애플바바마 공장 가동률을 100% 가까이 회복했고, 강(鋼)달러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생산 수출물량을 확대한 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이 없는 한 2025년 100만 대 판매와 점유율 6%대 진입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이미 연산 30만 대 규모의 현지공장(앨라배마)을 비롯해 40만 대 넘는 완성차를 수출하고 있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들어설 전기차 전용 공장(연산 30만 대)이 힘을 보태면 무난히 100만 대 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 전체를 따져보면 2025년 연산 170만 대, 점유율 12%대 진입도 가능하다. 이미 미국 현지에서 기아의 판매가 현대차의 90%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 시 통합 점유율은 12%대에 진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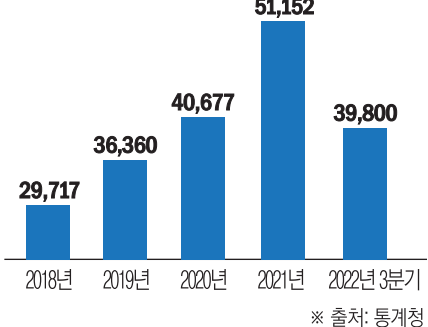
김준형 기자 junior@

소비자 지갑 여는 이커머스... ‘블랙프라이데이’ 최대 80% 할인

국내 이커머스업계가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 시즌인 이달 25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고객 잡기에 나선다. 연간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5조 원대로 성장한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직접 구매액은 2019년 3조6360억 원, 2020년 4조677억 원, 2021년 5조1152억 원으로 매년 20% 안팎씩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엔데믹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해외 직구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구매액 측면에서는 작년 수준을 웃도는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3분기 누적 구매액은 3조9800억 원으로 매분기 1조3000억 원대 구매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 (단위: 억원)



이커머스 업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은 27일까지 로켓직구와 로켓배송 직수입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을 연다. 나우푸드, 낫싱, 마샬, 다이슨, 샤오미, 에스티로더 등 쿠팡에서 인기가 높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매일 하루 4회 새로운 한정수량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단 하루 특가’에서는 조말론 향수, 마샬 액톤 스피커 등 글로벌 인기 상품을 소개한다. 매일 오전 7시,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7시에 시작한다.

SSG닷컴도 27일까지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SSG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무스너클’, ‘지방시’, ‘글로에’, ‘펜디’, ‘생로랑’ 등 22FW 명품 신상품 물량을 확보했다. ‘에스티로더’, ‘시슬리’, ‘라메르’ 등 명품 화장품도 만나볼 수 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신세계물, 신세계백화점물 상품에 적용 가능한 12%, 10% 할인 쿠폰 2종을 선착순 2만 명에게 발급한다.

11번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아마존

과 함께하는 ‘11번가 블랙프라이데이 오리지널’ 세일을 30일까지 실시한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와 해외직구 카테고리를 총망라해 수백만 개의 블랙프라이데이 딜을 최대 80% 할인 혜택으로 마련했다. 블랙프라이데이 인기제품인 ‘LG 75인치 UHD TV’는 관·부가세 포함가로 국내 유사 스펙 제품 대비 30만 원 이상 저렴한 140만 원대, ‘LG 86인치 UHD TV’는 210만 원대로 기획해 선보인다.

G마켓과 옥션도 블랙프라이데이 시즌과 연말 쇼핑 대목을 겨냥해 준비한 ‘해외직구 빅세일’을 30일까지 진행한다. 명품·패션은 유럽 현지 아웃렛 재고를 확보하고 젊은 층 선호도가 높은 유럽 내 컨템포러리 브랜드와 미국패션 브랜드 소싱을 강화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IMF 지원금 느는데, 부도위기 여전한 신흥국…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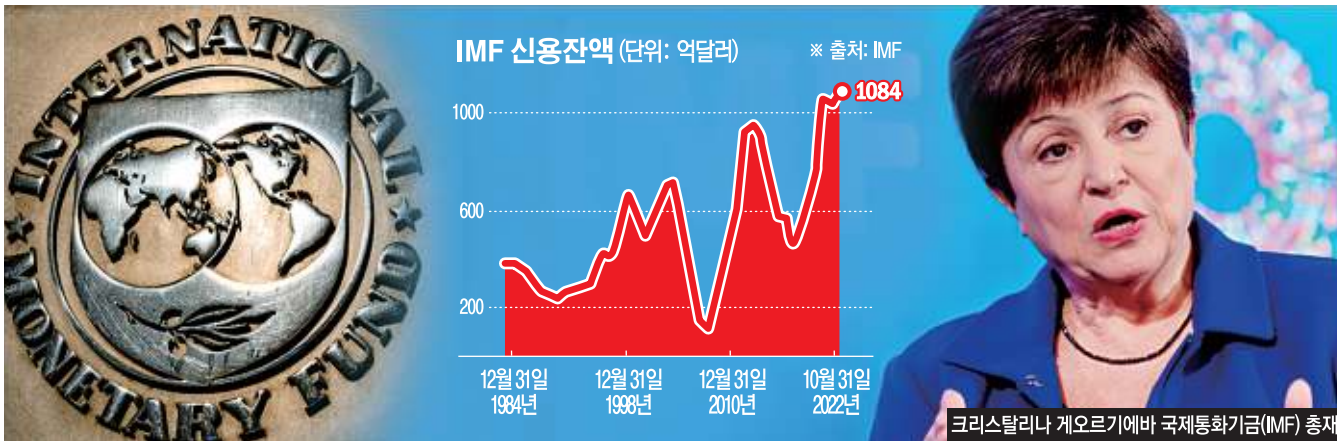
IMF 신용잔액 1100억弗 최대

신흥국 의존도 갈수록 커지는데
금리상승·강달러에 상황 악화
채무국 부도시 IMF도 악영향
대출시 긴축·공공민영화 요구
경제 회복 저해하는 원인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의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IMF 신용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런데도 신흥국과 개도국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은 여전하다.

이에 관해 국가부채 전문가인 레이나 모슬리 프린스턴대 정치외교학 교수와 이올란다 프레스닐로 유럽 개발·부채 네트워크(EURODAD·유로다드) 연구원은 2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IMF의 대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신용잔액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1000억 달러(약 135조 원)를 돌파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31일 기준 약 1084억 달러를 기록해 IMF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1984년 이래 가장 많았다. 그만큼 IMF가 신흥국과 개도국에 막대한 돈을 퍼부었지만, 채무국 위기는 여전하다.



레이나 모슬리
프린스턴대 교수

이올란다 프레스닐로
유로다드 연구원

모슬리 교수는 “확실히 개도국의 부채위기와 디폴트 위험은 여러 이유로 과거보다 지금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많은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많은 국가에서 높아진 상품 가격과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금리 상승과 강달러는 신규대출과 달러 표시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더 비싸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모슬리 교수는 IMF도 디폴트 위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채무국들은 보통 IMF와 같은 다자간 기구의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지만, IMF도 채권단 중 하나인 만큼 때로는 차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

다”고 지적했다.

프레스닐로 연구원은 IMF의 대출방식을 지적하며 불어난 신용잔액에 비해 채무국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IMF 대출엔 대가가 따른다. 특히 긴축 정책 방식이 그렇다”며 “우린 IMF 대출에 있어 채무국의 경제 정책과 연관된 융자 조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MF는 세계은행(WB)과 함께 공공서비스 지원을 늘려야 한다. 민간 협력(PPP)을 비롯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사업화

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도 불거졌던 문제다. 당시 IMF는 흑독한 긴축과 금리 인상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여했고, 이는 이후 한국 경제 회복을 늦춘 원인으로 지목됐다. IMF는 지금도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에 지원을 대가로 강도 높은 긴축을 압박하고 있다.

IMF가 채무국이 아닌 채권단을 우선시하는 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프레스닐로 연구원은 “IMF가 채무국이 아니라 민간·양자 채권단을 구제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요소”라며 “우린 너무나 많은 경우에서 IMF 대출금이 개도국의 요구를 해결해주기보다 금융기관과 같은 외부 채권단 빚을 갚는데 먼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자 채권단은 개도국과 1대 1로 자금을 빌려준 국가를 뜻한다.

고대영 기자 kodae0@

무역협 “韓 제조업 서비스화 美·獨·日·中에 크게 뒤처져”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韓제조 서비스화율 15.6% 생산·부가가치유발도 꼴찌

우리 수출상품 제조 과정에 투입된 서비스 비중이 주요 제조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례와 우리 기업의 혁신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란 기획-생산-유통-판매-유지보수 등 제조 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부가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파생시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서비스 화율은 15.6%로 주요 제조 강국들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제조-서비스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독일(48.0%), 미국(22.6%), 일본(17.6%) 등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수출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서비스의 비중도 한국은 27.9%로 독일(36.5%), 일본(30.4%), 중국(29.7%), 미국(28.2%) 등 주요 5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제조업 수출로 인한 서비스 생산유발효과, 서비스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5개국 중 가장 낮았다.

강내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 양적 보급 중심, 개별 기업 대상의 직접지원 중심이라는 점에서 해외 제조 강국과 지원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다”며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수출 효과도 증대

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조 서비스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 매칭 촉진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원천기술·솔루션 개발 지원 △스마트제조 국제표준화 참여 △제조 서비스화 관련 통계 인프라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생산-전방-공정-후방 등 가치사슬 단계별로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 서비스화 현황도 분석했다. 국내외 기업들은 생산-전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화를 통해 소비자의 성향과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화된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시대가 도래했다. 맥킨지에 따르면 개인화는 기업 매출을 10~15%를 상승시키며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공정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전환으로 생산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얻거나,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 확장·해외 진출도 가능해졌다. 현실 속 사물을 디지털 세상에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제조 공정이 ‘자동화’에서 ‘자율화’로 전환되고 있기도 하다.

생산 후방 단계에서는 제품에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최종재의 서비스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들은 컨설팅, 솔루션 사업 등 서비스를 제품에 부가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공유·구독경제 등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민재 기자 2mj@



미국주식거래 아침 10시까지 자유롭다!

업계 최초! 미국 애프터마켓 거래시간 4시간 제공

바쁜 출근 시간에도 2시간 더 여유 있게 매매할 자유!
미국 주식, 제대로 하시려면 나무를 시작할 때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22-03373(2022.10.12~2023.10.11)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써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한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0.25%(미국, 온라인 기준, 국가별 상이), 수수료 외에 미국 주식 매도 시 SEC Fee 0.00051%가 부과되며(국가별 상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amuh
나무증권

“불미스러운 사태 재발 방지”…尹, 도어스테핑 중단

MBC와 비서관 언쟁 후속 조치
尹, 청사 입구서 집무실로 직행
전문가들 “소통 의지 약화”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임 이후 6개월 이상 이어오던 출근길 약속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중단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 18일 발생한 MBC 기자와 대통령실 홍보기 확보비서관 사이의 언쟁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MBC 출입기자들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를 놓고 당시 도어스테핑에서 공격적인 질문이 있었고, 이후에도 대통령실 비서관과 MBC 기자가 설전을 벌이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약속 문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통상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이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도어스테핑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바로 집무실로 향했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선 평가와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도어스테핑은 윤 정권 들어 바뀐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중단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며 “계다가 초반에 야당이 ‘그만 두라’고 한 얘기를 결과적으로 듣는 꼴이 돼버린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애초 취지였던 ‘소통’ 의지가 약해졌다

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도어스테핑 중단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애초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올 당시 ‘이 곳이 너무고립돼 있고 외부와도 소통이 안된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 매일 출퇴근하며 기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던 얘기”라고 말했다.

신 교수도 “윤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 요소에 ‘소통을 잘 못 한다, 독단적이다’ 등

이재용 지배구조 흔드는 ‘삼성생명법’ 여야 줄다리기

보험사 보유주식 시가로 평가
총자산 3% 초과 지분은 매각
합의불발뎀 野 직권상정 전망

여야가 ‘삼성생명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원천봉쇄’ 뜻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할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 관련 쟁점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상정할 안건들이 대부분 정해졌지만 삼성생명법 등 일부 안건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삼성생명법을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정 투자 대상에 자산이 쏠리는 걸 제한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자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삼성가의 지배구조를 약화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렸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보험업법을 올리지 말자고 한다”며 “처리를 신중하게 하자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끝까지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삼성생명법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권한

이 있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법을) 올려야 한다. 안 올리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소위에서 직권상정을 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라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삼성생명법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저격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재무제표상 시가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권에서 빠지는 얘기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반칙을 할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재용 회장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라는 3자 이익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가수 선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에 국가재정 투입한다

당정 “중증·희귀질환 환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가수 선(로션 김)이 공동대표인 승일희망재단이 추진하는 ‘루게릭병 환자 요양병원’ 건립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 지킴기’ 뜻한 동행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당정은 이 같은 방침을 내놔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석했다.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에서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적 보살핌이 소외돼 왔다. 병원 건립을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며 “(루게릭병 요양병원의 경우) 건축비를 비롯해 필요한 금액이 약 120억 원 정도라고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2년에 걸쳐 정부가 지원하면 약 76개 병상이 나온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지부와 기재부에 병원이 완공되면 운영비 지원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범사

업으로, 추후 확대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션김 대표는 간담회 인사말에서 “승일희망재단은 2011년부터 루게릭병과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모금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원자재비가 급격히 오르고 기부금은 급속히 줄어 어려움에 부딪혔다”며 “내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루게릭병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당정은

희귀질환 치료 및 요양보호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성 의장은 “병원을 짓는 데 국가가 지원하고, 소아·청소년 환우들의 진단과 치료에 유전적 문제가 있어서 가족까지 확대하는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희귀질환 관련 국민건강보험 제도 보안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중증·희귀질환 건보 보장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가 의약품이 보험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김윤호 기자 uknow@

민주당 “레고랜드 사태
금융당국 기계적 대응”

진상조사단 “추경호 해명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금융당국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진상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과 오기형·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민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단순히 강원도의 회생 신청에 따른 채무불이행, 그것에 따른 신용위기 사안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시스템을 흔드는 쪽으로 전이되지 않게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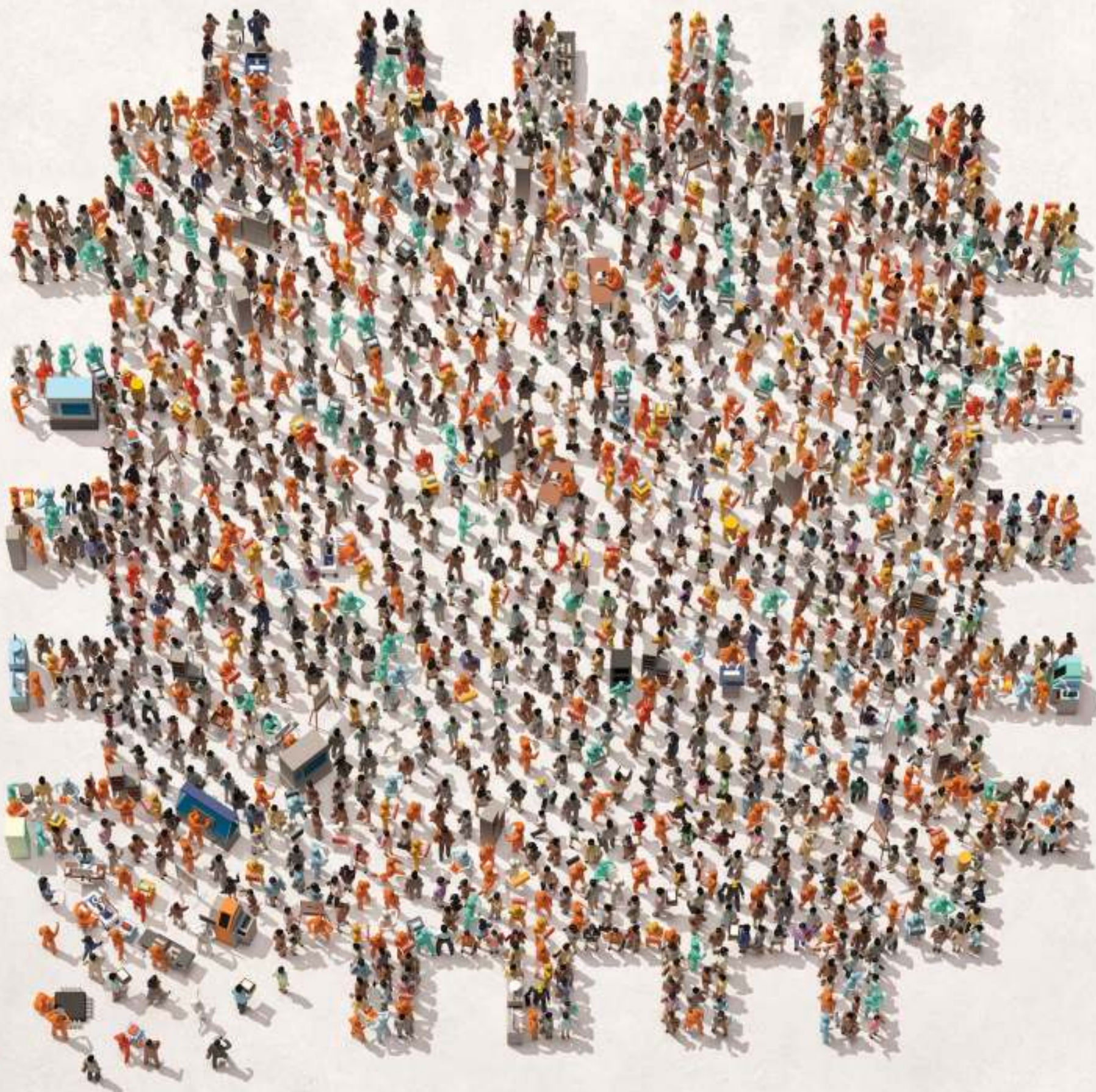
홍성국 의원은 “금융당국이 적절히 대응했다”라며 “금융당국이 해온 것은 기계적이었고,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응 없이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금융·통화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며,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청에 파견된 금감원 정책보좌관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회생 신청할 때 실제적인 역할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강원도 문제’라고 했는데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한 것”이라며 “판단 착오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 추 부총리가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사람입니다

첨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비도 공장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인,
39,000명의 SK하이닉스 사람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첨단 기술의 미래를 향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공시가 상승 여파... 100만명 처음 넘었다

올해 122만명에 종부세 부과

공시가 17% 뛰며 1년 만에 31% ↑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자 비중 8%
고지세액은 3000억 감소한 4.1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22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 보유자(약 1509만 명) 대비 8%의 인원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전년보다 31%(28만9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33만2000명)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작년 대비 올해 고지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등의 기본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17.2%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 20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는 3000억 원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작년 473만3000원에서 올해 336만3000원으로 137만 원 줄었다.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올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 부담 경감 조치 때문이다. 기재부는 고지 세액이 내려갔더라도 세 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

준이라고 했다. 2017년 총 고지 세액과 1인당 평균 세액은 각각 4000억 원, 116만 9000원 정도였다.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50.3%(7만7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2498억 원으로 전년보다 157억 원(6.7%)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전년보다 44만 3000원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이 통과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 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 원 감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공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겨울 정기세일 나선 백화점 업계

백화점 업계가 겨울철을 맞아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백화점 4사는 18일부터 내달 4일까지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21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이 1층 현관을 오가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환율상승 기대·금리인상 영향 기업 달러화예금 증가폭 최대

전월대비 75억 원 848억달러
증가 폭·액수 역대 최대 기록
거주자외화예금도 82억 늘어

기업 달러화예금 규모와 증가 폭이 각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금리 인상에 달러화예금 금리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주자외화예금도 80억 달러 넘게 늘어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을 나타냈다. 연화예금 역시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전월 말보다 81억5000만 달러 증가한 97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월(981억 4000만 달러) 이래 최고치이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2017년 10월(+96조2000억 달러) 다음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기업은 78억2000만 달러 늘어난 833억8000만 달러를, 개인은 3억3000만 달러 증가한 142억 7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거주자외화예금이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한은의 외환보유

액에 빚든 제2의 외환보유액 내지 민간 외환보유액이라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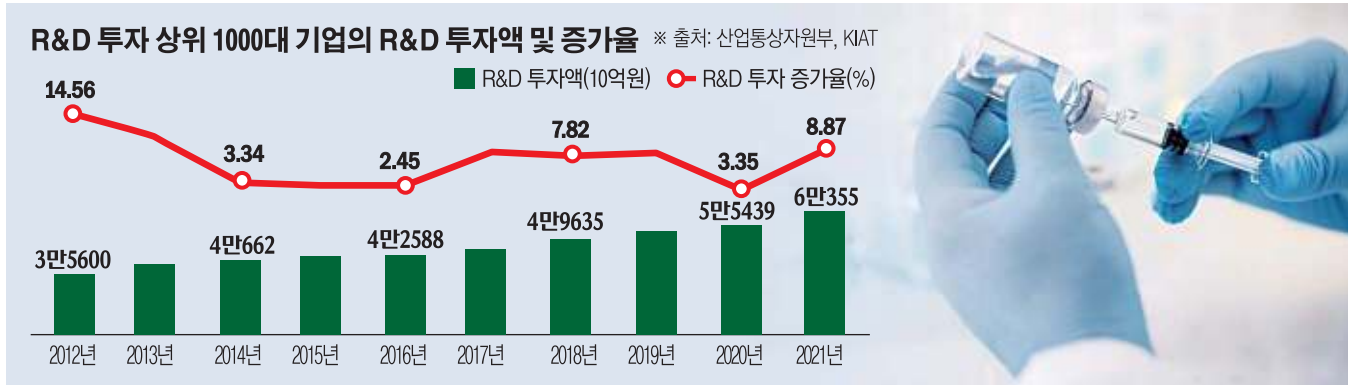
통화별로 보면 미달러화예금은 75억4000만 달러 증가한 848억 달러를 보였다. 이 또한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 11월(888억 달러) 이후 최고치이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2017년 10월(+78조2000억 달러) 다음으로 가장 큰 증가세다.

기업은 72억3000만 달러 증가한 723억1000만 달러로 규모와 증가 폭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각각 직전 최고치는 2021년 11월(720억 9000만 달러)과 2017년 10월(+71억 5000만 달러)이었다. 개인도 3억 1000만 달러 늘린 12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전월 말 대비 5.9원(0.4%) 하락한 1424.3원을 보였다(월말 기준). 반면, 월평균 기준으로는 35.07원(2.5%) 급등한 1426.66원을 기록했다.

신재혁 한은 자본이동분석팀장은 “수출입 결제대금 예치와 현물환 매도 지연 등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직전 월에 비해 환율이 크게 오르내린 것은 아니나, 1400원대 중반에서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레깅(Lagging, 결제일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한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남현 경제전문기자 kimnh21c@



경기 침체에도... 1000대 기업 R&D 투자 9.4%↑

정부, 기업 R&D 스코어 보드

전년비 5.7조 오른 66조1000억
2013년 10.5% 이후 증가율 최고
제조업 투자액, 전체의 88% 차지

올해 우리나라 상위 1000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전년 대비 9.4% 증가한 66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1000대 기업이 R&D 투자액을 늘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은 이런 내용의 ‘기업 R&D 스코어 보드’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9.4%(5조7000억 원) 증가한 66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증가 추세도 힘을 받는 모습이다. 2020년 3.4%, 2021년 8.9%에 이어 올해 9.4%의 증가율이 예상돼 2013년 10.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R&D 투자액은 2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2조6000억 원) 늘었다. 지난 10년간 투자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5조 6000억 원에서 2014년 40조6620억 원,

2019년 53조6420억 원, 2021년 60조 3550억 원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2021년 1000개 기업 R&D 투자액 52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3조5000억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조5000억 원) 순으로 R&D 투자가 많았다.

인원 수로 구분한 기업별 R&D 투자액은 1000명 이상이 51조8490억 달러로 85.9%에 달했다. 그다음으로 300~999명 4조 4540억 원, 100~299명 2조6740억 원, 99명 이하 1조3780억 원을 투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3분기 소비자물가 5.9% 급등... 24년 만에 최고

석유류 상승폭 최대... 23.7% ↑
제주·강원·충남, 평균보다 높아
취업시장 고용률 오르며 호조세

기름값 급등과 외식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전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9%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했다. 분기별로 볼 때 1998년 4분기 6.0% 오른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년 전보다 23.7% 급등해 3분기 물가를 가장 많이 끌어올렸다. 외식(8.7%), 가공식품(8.4%), 외식외개개인서비스(4.3%)도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7.0%), 강원(6.9%), 충남(6.9%)은 석유류 등 물가가 전국 평균보다가 높게 상승했다. 서울(5.2%), 부산(5.5%), 대전(5.5%)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소비와 연관된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1% 줄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슈퍼마켓·잡화점, 면세점 등의 판매가 감소한 탓이다. 경남(2.7%), 인천(2.5%), 대구(2.4%)는 승용차·연료소매점, 면세점 등의 판매가 늘어 소매판매가 증가했다. 광주(-3.2%), 충북(-2.0%), 전북(-1.8%)은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 감소로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트레일러,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부산(16.4%), 대구(8.6%), 광주(8.3%)는 운송장비, 자동차 등의 생산이 늘어 광공업 생산이 증가했다. 충남(-

4.7%), 서울(-3.6%), 전남(-2.5%)은 반도체·전자부품,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의 생산 감소로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숙박·음식점, 운수·창고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5.9% 늘었다.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업생산이 늘었다. 제주(8.3%), 인천(8.0%), 부산(7.7%)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취업 시장에서는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내리며 호조세를 보였다. 3분기 전국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p) 상승한 62.8%, 실업률은 0.3%p 하락한 2.5%를 기록했다. 제주(+3.4%p), 경기(+2.7%p), 울산(+1.8%p)의 고용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실업률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1.2%p)이고, 제주(-0.8%p), 경기(-0.5%p)가 뒤를 이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폐지수거 대란’ 우려... 정부는 미온적

값·수요 동반 하락에 수거 안돼
“가격 최저보상제 등 대책 마련을”

최근 폐골판지 가격이 킬로그램(kg)당 100원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지면서 ‘폐지 수거 대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폐지 가격은 폐골판지가 1kg당 102.3원, 폐신문지는 131.3원을 기록했다. 작년 10월 폐골판지가 150.6원, 폐신문지가 153.5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32%, 14% 떨어졌다. 전달인 올해 9월 107.8원과 135.2원을 유지했던 것에 비춰보면 가격 내림세는 계속되고 있다.

수출 가격은 더 심각하다. 폐골판지 수출 가격은 작년 9월 1톤당 242달러(약 32만7700원)에서 올해 129달러(약 17만 4700원)로 반 토막 수준이다.

폐지는 개인·고물상이나 수거업체를 거쳐 압축장에서 종이 원료로 가공할 수 있게 압축한 후 제지사로 넘겨지는 구조다. 제지사는 이를 활용해 골판지 등을 생산한다.

문제는 폐지 수요가 줄고 가격이 급락하면서 압축상과 제지업체에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폐지가 남으니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 폐지 수거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폐지 1만9000톤의 시장 격리 조치를 내렸다. 제지사가 이를 매입해 전국 6곳의 공공비축시설에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보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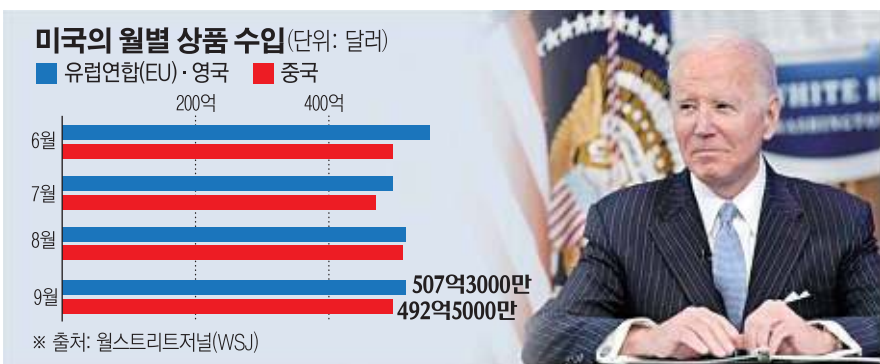
관련 업계에서는 2만 톤 규모의 시장 격리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재활용 수거업체 관계자는 “폐지 가격 최저보상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중·러시아産 살 바엔”... ‘新냉전 시대’ 돈독해진 미·유럽

동서 노선 따라 세계 경제 재편
美, 中 對유럽 수입 對중국 추월
미·유럽, FDI도 10% 이상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중국을 향한 서구권의 경제심이 강해지면서 세계 경제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 간 무역과 투자가 매우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중국보다 유럽에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대중 수입이 더 많았던 1월과 달리 올해 2월부터 9월까지의 대유럽 수입이 중국을 웃돌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경우 대미 수출이 9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50% 폭증했다. 중국이 지배적인 무역 파트너였던 2010년대와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관계가 한층 돈독해지는 것은 동서 노선을 따라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WSJ는 분석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대신해 유럽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국으로 떠올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거치면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경계하게 된 유럽이 미국을 대체국으로 선택하고 있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자국 기계공업 업체들의 올해 9월까지 대미 수

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늘어난 180억 유로(약 25조747억 원)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은 140억 유로로 지난해보다 3% 줄었다. 랄프 위처스 VDM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경제 문을 여는 동안 중국 내에선 코로나19 봉쇄 등 장애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 긴축에도 올해 미국의 수요가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분석국은 올해 미국이 2019년보다 3분의 1가량 더 늘어난 규모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탄탄한 미국 경제에 유럽의 대미 수출이 탄력을 받는 것이다.

무역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서로에 대한 직접투자도 최근 수년간 매우 활발해졌다.

지난해 유럽의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약 3조2000억 달러(약 4336조3200억 원)에 달했다. 유럽에 대한 미국의 FDI도 약 10% 늘어나 4조 달러에 육박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FDI는 1180억 달러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로디움그룹은 “유럽 기업들이 투자를 다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인건비도 올랐고, 무엇보다 기업들은 코로나19 규제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 화학회사인 솔베이의 일함 카드리 최고경영자(CEO)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중국보다 미국을 훨씬 선호한다”고 말했다. 최근 솔베이는 미국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8억5000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 정영인 기자 oin@



방글라데시 韓 축구팬 “월드컵 승리 기원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16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브라만바리아에서 한국 축구팬인 한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이웃마을까지 다리로 연결된 총 3.5km의 길에 태극기를 걸고 있다. 그는 한국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살게 됐다면서 감사하는 의미로 월드컵에서 한국 승리를 기원하며 태극기를 게양했다고 설명했다. 브라만바리아(방글라데시)/AFP연합뉴스

‘디즈니 구원투수’ 아이저, 2년 9개월 만에 재등판

2020년까지 15년간 황금기 리드
실적·주가 부진하자 CEO로 복귀

최근 위기에 몰린 월트디즈니가 회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밥 아이저(사진) 전 회장을 ‘구원투수’로 다시 복귀시켰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디즈니 이사회는 이날 밥 체이펙 현 최고경영자(CEO)를 아이저 전 회장 겸 CEO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수전 아놀드 디즈니 이사회 의장은 성명에서 “이사회는 디즈니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산업 변혁의 시기에 놓이게 된 가운데 밥 아이저가 중요한 시기에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저는 2020년 2월 체이펙에게 CEO 자리를 물려준 지 2년 9개월 만에 회사 수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 지난해 12월 CEO에 이어 의사회 의장직까지 내려놓고 회사에서 완전히 떠난 시기를 감안하면 11개월 만에 현역으로 복귀한 셈이다. CNBC에 따르면 디즈니와 아이저가 합의한 고용 기간은 2년으로, 그의 복귀에 체이펙 CEO는 즉시 퇴사 조치됐다.

아이저의 복귀 결정과 체이펙 CEO 퇴임은 디즈니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대규모 감원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디즈니 주가는 올해 들어 41% 하락했다. 시장 기대를 밑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려를 키운 영향이다. 특히 온라인 동영



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지난 분기에 전년 대비 2배가 훌쩍 넘는 14억7000만 달러(약 1조996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체이펙 CEO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아이저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디즈니의 황금기를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와 마블, 루카스필름 등을 인수하며 디즈니를 거대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으로 일궈냈으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투자 등으로 회사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체이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자리를 물려받은 핸디캡도 있었지만, 실적 부진과 좋지 않은 평판으로 결국 낙마하게 됐다. 그는 팬데믹 규제 완화 후 여행 수요가 늘어나자 디즈니랜드 입장료를 인상해 고객들의 원성을 샀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바이든 ‘팔순 최고령’ 타이틀, 재선 변수 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생일을 맞이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80세 대통령이란 기록을 쓰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친지들과 브런치를 하며 조촐하게 생일을 축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그의 손녀 나오미 바이든이 백악관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기쁜 일의 연속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WSJ는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서 도 차기 대선과 관련해 바이든의 고령을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도 고령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지난주 아시아 순방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콜롬비아로 언급했고, 순방길을 떠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헤르손을 이라크 팔무자로 혼동했다.

유권자들도 80세는 너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약 86%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를 75세 이하로 봤다.

그가 재선에 도전하면 공화당이 나이를 문

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마저 올해 76세인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나이 문제에선 우위라는 분위기다.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재선에 성공하면 이전 재선 최고령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당시 73세)보다 10세 가까이 나이가 많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2년간 훌륭한 입법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한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직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제는 그가 다음 세대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영인 기자 oin@

항공사 “안전보다 비용” ‘1인 조종사’ 비행 추진

유럽 항공당국, ICAO 서한
사고대처 ↓ 우려 목소리도

전 세계 항공사와 규제 당국이 여객기 조종실에 조종사 1명만 두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당장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비용 절감에 업계가 얼마나 목 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뉴질랜드를 포함한 40개국 이상이 단일 조종사 비행을 항공안전 표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요청했다.

ICAO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상업용 무인 항공기의 개발과 비행 시스템 자동화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점은 우리 업계에 단일 조종사 운영의 기술적 타당성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며 “규제 기관은 이 같은 기술 발전을 안전 강화 측면에서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이미 항공사들과 협력해 단독 비행의 운영 방식과 감독 규칙 설정 준비에 들어갔다. EASA는 이르면 2027년 단일 조종사 체제가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이 여객기 조종실에 2명이 아닌 1명의 조종사만을 두려는 건 비용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항공업계는 꾸준히 조종실 인력을 줄여왔다. 1950년대 여객기 조종실은 기장과 부기장, 비행 엔지니어, 항해사, 무선 통신사까지 총 5명이 탑승했다. 기

술 발전으로 점차 마지막 세 자리는 사라지게 됐다.

여기에 지난 몇 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업계 불황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단일 조종사 방안까지 부상하게 됐다. 해마다 여객기 사망자 수가 감소세인 것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여객기 사고 사망자는 176명이었다.

다만 일각에선 조종사 1명으로 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비행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2009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객 228명 전원이 사망했던 당시 기장이 객실에서 쉬다가 뒤늦게 문제를 감지해 일이 벌어졌다. 당시 기장이 상황 발생 후 90초 만에 조종석에 앉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칸타스항공에서 에어버스 A330을 조종하는 토니 루카스 기장은 “홀로 남은 조종사는 다른 사람이 도우리 조종석에 도착하기 전에 긴급상황에 압도될 수 있다”며 “(비행기에서) 일이 잘못되면 매우 빠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단일 조종사 체제는 비용을 줄이고 조종사 부족 압박을 완화하겠지만, 일부는 책임 통제를 한 명에게 맡기는 것을 불안해한다”며 “여전히 EASA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는 것도 과정 일부라며 단일 조종사 도입에 의욕을 보인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프라인에 있는 달러스포트워스국제공항에서 조종사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레이프라인(미국)/AP뉴스

4대 그룹 임원인사에 ‘쏟린 눈’… “복합위기 속 안정 무게”

삼성, 한중희·경계현 체제 유력
SK, 조대식 의장 4연임 가능성
현대차, 전문경영인 선임 촉각
LG, 부회장단 4인 변화여부 관심

이번 주 LG그룹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삼성·SK·현대차 등 4대 그룹이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주요 그룹사가 지난해 인사·조직 부문에 큰 변화를 줬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대폭적인 쇄신 인사 기조는 없을 것이라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4대 그룹 정기 임원인사의 키워드는 ‘성과주의’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LG그룹은 약 한 달간의 계열사별 사업보고회를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 LG그룹은 지난해 1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월 25일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할 바 있다. LG그룹은 ‘4인의 부회장단’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LG그룹은 권영수(LG에너지솔루션)·신학철(LG화학)·권봉석(LG)·차석용(LG생활건강) 부회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실적 부진에 빠진 LG생건의 차 부회장 유임 여부가 주목된다. 사장단 중에서는 올해 호실적을 낸 LG이노텍의

정철동 사장 승진 여부가 관심사다.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진행된 세대교체 인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통상 12월 첫째 주 목요일 정기 임원인사를 시행해오는 만큼 다음 달 1일께 인사 대상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SK그룹은 2017년부터 3연임 중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선임 여부와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부회장단의 변화가 주목된다.

재계에선 조 의장의 4연임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지난해 승진 후에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SK 장동현 부회장,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과 SK그룹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총괄하는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도 연임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삼성그룹은 12월 둘째 주에 임원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인사다. 주력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조직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한중희 부회장(DX부문장), 경계현 사장(DS부문장) 투톱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부 등을 이끄는 부사장(사장)들도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재승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임해 공석인 생활가전 사업부장은 후임 인사가 필요하다. 최초의 여성 사장 탄생 여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옛 삼성 미래전략실과 비슷한 컨트롤타워 복원은 올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4대 그룹 중 가장 낮은 12월 중순께 임원인사를 해온 현대차그룹은 시기를 앞당겨 초계 임원인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00명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임원인사를 단행한 만큼 올해는 조직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윤여철 전 현대차 부회장이 물러난 이후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없는 ‘부회장 전문경영인’ 선임 여부도 관련 포인트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계열사)의 수장들을 대거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한 곳들이 많아서 대대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강태우 기자 burning@



산타로 변신한 ‘해머링 맨’ 태광그룹 세화예술문화재단은 세화미술관의 대표 소장품 ‘해머링 맨’ 설치 20주년을 기념해 연말 프로젝트 ‘해피뉴이어 해머링 맨’을 진행한다. 21일 밝혔다. 해머링 맨은 미국 조각가인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연작으로, 2002년 6월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 설치됐다. 35초에 한 번씩 망치질하는 해머링 맨은 노동의 숭고한 가치와 현대인의 고독한 삶을 표상한다. 사진제공 태광그룹

‘재무 안정’ 택한 롯데케미칼 유상증자로 1.1兆 자금수혈

인수대금·운영자금 활용 가닥
20% 할인 발행… 오버행 우려

롯데케미칼의 1조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0% 할인 발행에 따른 대규모 오버행(공급과잉) 우려는 과제로 남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 18일 850만 주 규모 구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예정발행가 1만3000원 기준으로 약 1조1050억 원 규모다. 모집한 자금은 일진메타리얼즈 인수에 605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0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내년 한해 동안 총 4조1000억 원의 투자하는데 이 중 1조2000억 원은 기존 사업에, 2조9000억 원은 전지소재 사업 등에 투입한다. 이번 유상증자 후 나머지 투자금은 보유현금(9월 말 기준 약 3조5000억 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지난해 18조 원 규모던 매출액을 오는 2030년까지 50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수

익성이 좋은 고부가 제품 비율을 기존 40%에서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중 전지소재 사업 매출을 7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했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재무구조 안정성 유지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53% 수준으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동종 업계와 비교하면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자랑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자본금이기에 재무 안정성이 한층 개선된다. 다만 오버행 우려는 주주 몫으로 남았다. 이번 유상증자 할인율은 20%로, 신규 발행 주식수는 기존 주식 대비 25%에 달한다. 저가 발행된 대규모 주식이 차익시현 목적으로 풀리면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차 발행가액 확정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주가 추이를 기준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산정된다. 유상증자에 롯데그룹 참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케미칼에서 그룹사 지분은 54% 수준인데, 유증 참여는 각 회사 이사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주가 지원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영 기자 pgy@

메모리 반도체 본격 감산… “내년 하반기 반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D램 반도체의 출하량과 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체의 연이은 감산으로 내년 하반기 업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세계 3위 D램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은 최근 반도체 업황 한파를 이유로 감산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내년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2022 회계연도 4분기(6월 3일~9월 29일)에 비해 약 20% 줄인다. 마이크론은 이와 함께 설비투자의 축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실적발표 당시 2023년 회계연도의 설비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가량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이보다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침체기)이 내년 2분기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감산은 업황 회복의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요 약제와 유통·고객사의 재

美 마이크론, 내년 생산 20%↓
설비투자 규모 30% 이상 축소
“재고 소진 이후 업황 정상화”

고 확보로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을 통해 가격 하락세를 방어한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은 내년 2분기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업황 저점은 수요 개선보다는 공급 축소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메모리 흑한기를 돌파하기 위해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 역시 전방위적으로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진행 중이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2위인 SK하이닉스는 일찌감치 감산 계획을 공식화하고, 업황 회복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내년 투자 규모도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D램 공급량은 재고 출하를 포함해 전년 대비 올해 4%, 내년 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메모리 시장에 초과공급이 있었지만, 단기적 수요 부진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 회복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이 아닌 ‘자연적인 감산’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대로 공식적인 감산이 아니더라도, 설비 투자 속도 조절과 라인 효율화를 통해 캐파(생산능력)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감산으로 출하량을 조절할 경우 쌓여있는 고객사들의 재고가 점차 소진될 것”이라며 “재고 소진 이후 고객사들이 새로 주문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고, 그쯤 업황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LG디스플레이 “동전 두께 스피커로 고품질 음악 감상”

차량용 사운드 솔루션 개발

자동차에서 ‘보이지 않는 스피커’로 프리미엄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보이지 않는 스피커로 고품질 사운드를 구현한 신개념 ‘차량용 사운드 솔루션(Thin Actuator Sound Solution)’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업계 최초로 상용화한다. 기존 스피커는 부품 수가 많아 크고 무겁지만, 이 제품은 LG디스플레이가 독자 개발한 필름 형태의 익사이터(진동 발생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차량용 사운드 솔루션’ 모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차량용 사운드 솔루션은 여권만한 크기(150mm×90mm)와 무게(40g), 500원 동전과 비슷한 두께(2.5mm)로, 매우 작고 얇고 가벼워 기존 자동차 스피커 대비 무게는 30%, 두께는 10%에 불과하다. 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탑승자의 눈에 스피커가 보이지 않아 실내 디자인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 또 기존 스피커의 필수 소재인 네오디뮴(Nd) 등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 측면 역시 우수하다. LG디스플레이는 내년 1월 5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글로벌 음향 업체와 협업한 ‘차량용 사운드 솔루션’을 최초로 공개한다. 이다솜 기자 citizen@

LIG넥스원, 잠수함 전투체계 자동화 사업 수주

LIG넥스원은 17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396억 원 규모의 ‘잠수함용 지능형 임무지원시스템 통합자동화 기술’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전투체계의 주요 핵심 기능들에 AI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탐지·추적 → 식별·위협평가 → 무장할당·전술운용 → 교전·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지능화, 자동화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차세대 잠수함에 AI 기반의 지능화, 자동화된 임무지원시

스템이 탑재되면 주로 단독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센서로부터 획득한 방대한 수집정보를 신속하게 융합·해석해 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상태추정 및 상황판단에 따라 운용 복작성으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해 전투 수행 능력도 향상할 수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일	상	의		금	융	에	서
일	생	의		금	융	으	로

소중한 이와의 삶을 위해
견뎌야 하는 행복의 무게도
농협금융과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소중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롯데부터 오리온까지… 유통가, 바이오에 ‘꽃혔다’

국내 유통기업들이 앞다퉈 바이오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급성장하는 국내외 바이오 시장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K바이오의 후발주자가 된 유통기업의 결단이 시기적절한 선택인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CJ와 롯데에 이어 오리온이 본격적인 바이오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모두 국내 대표 유통·식음료 기업이다.

오리온홀딩스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오리온바이오로직스의 설립을 결정하고 다음 달 16일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다. 사업분야는 의약품과 소비재, 식품원료 개발 및 판매다. 아직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사업과 다른 바이오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바심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리온은 바이오와 음료, 간편대용식을 3대 신수종사업으로 선정하고 바이오사업 진출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중국 현지 국영제약기업 산둥루강하오리요우생물기술개

유통기업 바이오 사업 진출 현황		
지주사	자회사	주력 사업
롯데	롯데바이오로직스	위탁개발생산
CJ	C.바이오사이언스	마이크로바이옴
오리온	오리온바이오로직스	의약품 개발

발유한공사(이하산둥루강하오리요우)를 설립하고, 국내 바이오 유망기술을 도입해 중국 현지에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조기진단 기술을 도입하고, 중국에 암 체외진단 제품 개발을 위한 대규모 양산설비도 갖췄다. 올해 2월에는 큐라티스와 결핵백신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산둥루강하오리요우를 통해 중국 산둥성 지닝시의 바이오산업단지에 900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바이오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국내 자회사 설립을 결정한 것이다.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으

오리온, 자회사 설립·편입 공시
中 현지에 국내기술 도입·상용화

롯데, 美 BMS 생산공장 인수
향후 10년간 2조5000억 투자

CJ 면역항암·자가면역질환 신약
이르면 2년내 美 FDA 임상 돌입

며, 자회사 편입 시점에 맞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 설립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청사진은 좀더 구체적이다.
5월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쿱(BMS)의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는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에 뛰어 들었다.
또한 회사 출범과 동시에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연내 시러큐스 공장 인수를 마무리하고, 10억 달러(약 1조3500억 원)를 투자할 국내 생산시설을 두고 인천 송

도와 충북 오송을 저울질하고 있다.
시러큐스 공장은 62개국 이상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승인 경험이 있다. 이곳에 항체의약품 CDMO 설비투자까지 진행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롯데지주는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언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앞으로 10년간 바이오사업에 2조5000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CJ는 올해 1월 CJ제일제당의 레드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C.바이오사이언스(구 천랩)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 나섰다. 이르면 2년 내 면역항암·자가면역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C.바이오사이언스는 면역항암제 불응성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CJRB-101’과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CLP105’의 임상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6억 원, 영업손실은 207억 원이다. 유혜은 기자 euna@

국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황

기업명	제품명	진행현황
일동제약·일본 시오노기 제약	조코바(S-217622)	22일 일본 후생노동성 긴급사용승인 여부 발표
현대바이오사이언스	CP-COV03	임상 2상 진행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 신청 예정
신풍제약	피라맥스정	영국 등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코로나 재유행에… 새 국내 치료제 개발 활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7차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코로나 치료제 개발 국내 기업으로 관심을 받는 곳은 일동제약과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 등이다.

일동제약이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경우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긴급사용승인 여부가 판가름 난다. 올해 6월과 7월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유효성 관련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조코바는 1일 1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단백

일동제약, 日과 ‘조코바’ 공동개발
현대바이오, 이달내 임상2상 완료
신풍제약, 변이대응 치료제 개발

질 분해효소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주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다.

업체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이번 조코바 긴급사용승인 허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시오노기제약은 지난 9월 말 완료한 임상 3상에서 후생노동성이 요구하는 1차 유효성평가 지표를 모두 달성해 안전성과 유효성 모두 있다고 했다. 조코바가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면 국내 승인 절차도 곧 이어질 전망이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조코바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 국내 임상시험을 비롯한 개발

활동을 수행해왔다. 현재 국내 제조 및 독점 판매 권리를 확보한 상태다.

현대바이오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 ‘CP-COV03’ 임상 2상을 이달 내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임상 막바지 단계”라며 “메르스·에볼라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효능이 입증된 니클로사마이드의 흡수율을 CP-COV03가 높여준 다”고 말했다.

신풍제약은 오피르론 변이에 대응하는 치료제 ‘피라맥스정’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삭약 치료부터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영국·폴란드·콜롬비아·아르헨티나·칠레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한국제약바이오협, 美 전문가들과 협력체계 구축

KAPAL 연례 심포지엄서 MOU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7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제약바이오 단체·전문가 그룹과 정보 및 인적 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원희목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현지 의약품 규제기구와 미국제약협회 등 다양한 채널의 파트너들과 만남을 가졌다.

대표단은 17일 워싱턴DC에서 미국제약연구제조사협회(US PhRMA)를 방문해 신약 개발 정부정책 공유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 회장은 “국내 산업계의 신약 개발 가속화와 성과 도출 등을 위해 US PhRMA와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이 테일러 US PhRMA 수석 부사장



원희목(왼쪽 두 번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미국제약연구제조사협회(US PhRMA)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은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에 주목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대표단은 한미생명과학인협회(KAPAL) 연례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 협회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APAL은 워싱턴DC를

중심으로 한인 생명과학 및 제약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영리단체다. 양 기관은 정보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35호 ‘국산 신약’ 곧 나온다

대웅제약 2형 당뇨병 치료제
올해 내로 허가 가능성 높아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 목표

국산 신약 1호로 1999년 SK케미칼이 개발한 ‘선폴라주’ 이후 32년 동안 허가된 신약은 34개다. 매년 1개꼴로 국산 신약 개발 역사를 써 왔다. 최근 수년간 국내외에서 K-제약바이오 기술력이 인정받으며 국산 신약개발 기술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올해 35호 국산 신약이 나올 전망이다. 첫 번째로 꼽히는 약이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이나보글리플로진’으로, 연내에 허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다.

이나보글리플로진은 대웅제약이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SGLT-2(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신약이다.

지난달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대웅제약은이나보글리플로진의 3상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이나보글리플로진을 24주간 단독 투여한 결과 위약 대비 당화혈색소가 약 1%포인트(p) 감소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체중·혈압·콜레스테롤 등도 위약과 비교해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학술대회에서 임상결과를 발표한 판수현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이나보글리플로진은 단독 또는 병용요법이 필요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강하 효과 외에도 대사이상 개선 효과를 겸비한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에 지정된 이나보글리플로진은 현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나보글리플로진 연내 품목허가와 2023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국산 신약은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34개 국산 신약 중 7개 제품이 연간 처방액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제품이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다. 보령에 따르면 카나브는 2011년 3월 발매 후 2014년 고혈압단일제 매출 1위를 기록했고, 카나브 제품군은 2020년 연간 처방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국산 신약 30호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도 눈에 띈다. 국내 출시 3년 만에 처방액 1000억 원을 넘겼다. 종근당의 20호 신약인 2형 당뇨병 치료제 ‘듀비에’, 26호 동아에스티의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등도 처방액이 늘고 있다.

JW중외제약, 표적 탈모치료제 공개

日 학회서 ‘JW0061’ 첫 선

JW중외제약은 자사 연구진이 새롭게 규명한 Wnt 표적 탈모치료제 ‘JW0061’의 작용기전과 전임상 효능평가 결과를 일본에서 열린 ‘Wnt 2022’ 학회에서 최초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JW0061은 피부와 모낭 줄기세포에 있는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해 모낭 증식과 모발 재생을 촉진하는 혁신신약 후보 물질이다. 발표된 전임상 결과에 따르면, JW0061이 모유두 세포에 있는 GFRA1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 Wnt 신호전달경로

가 활성화되는 작용기전을 새롭게 확인했다. JW중외제약은 동물 모델에서 JW0061, 표준치료제, 위약 등을 각각 실험 부위에 바른 결과, 약물 도포를 시작한 지 34일째 기준 위약군 대비 JW0061의 모발 성장과 모낭 신생성 효과를 확인했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 JW0061을 기존 탈모치료제를 보완,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신약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박찬희 JW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는 “GFRA1을 타겟으로 하는 저분자 약물의 최초 보고 사례로 혁신적인 탈모치료제 후보물질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AGBO 품은 넥슨… 故김정주 ‘한국판 디즈니’ 꿈 이룬다

게임업계 IP 확장 속도전

넥슨이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염원인 ‘한국판 디즈니’를 위한 행보에 한 발 더 다가선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AGBO의 최대주주에 오르며 영화와 TV 분야로 콘텐츠 지식재산(IP) 확장을 꾀하고 있다.

넥슨은 AGBO에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지분 11.21%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넥슨은 올해 1월 4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38%를 인수한 바 있다. 넥슨은 이번 투자를 통해 총 49.21%의 지분을 확보하고, 기존 경영진을 넘어 단일 투자자 기준 AGBO 최대주주에 등록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발돋움 = 김정주 넥슨 창업자는 세상을 떠나기 전, 디즈니를 자주 언급하며 닮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 ‘플레이(Play)’를 통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디즈니의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인 닉 반다이 크 수석 부사장을 영입해 글로벌 영화·TV 시리즈 진출을 본격화 했다. AGBO에 투자하는 것 역시 김정주 창업자의 의지가

1억弗 추가 투자 최대주주에

美·日 등서 다양한 IP 확보

영화·TV콘텐츠 제작 나설듯

컴투스, SM 지분 4.2% 확보

크래프톤·넷마블도 엔터 공략

반영된 결과다.

넥슨은 과거에도 IP확장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몸집을 불려나갔다. 그의 의지대로 넥슨은 미국의 완구 회사 ‘해즈브로’, 일본의 게임회사 ‘반다이 남코’, ‘코나미’, ‘세가’ 등에 투자하며 IP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확보한 IP는 넥슨의 IP와 함께 영화와 TV콘텐츠로 제작될 전망이다. 넥슨은 1996년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메이플스토리, 던전애파이터, 바람의나라, 카트라이더 등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다. 넥슨은 AGBO의 영화·TV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판 디즈니 꿈꾸는 넥슨

2019년 1월	김정주 넥슨 창업자, 매각 공시화 선언
4월	직접 디즈니 본사 찾아 넥슨 인수 요청
6월	넥슨 매각 무산
2020년 6월	해즈브로, 반다이남코, 코나미, 세가 등에 1조 원 규모 투자 단행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닉 반다이 크 영입	
2021년 7월	미국 LA에 넥슨 필름&텔레비전 조직 신설
2022년 1월	AGBO 스튜디오에 4억 달러 투자해 지분 38% 확보
2월	김정주 넥슨 창업자 미국 하와이에서 별세
11월	AGBO 스튜디오에 1억 달러 투자, 최대주주 등록

AGBO는 ‘어벤저스·엔드게임’ 등 마블 영화를 제작한 앤써니 루소, 조 루소형제 감독과 마이크 라로카 프로듀서가 2017년 LA에 설립한 스튜디오다. 영화와 TV, 오디오 그리고 상호 작용 경험을 포괄하는 IP 세계관을 제작하고 차세대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 혁신을 거듭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영감을 제공 중이다. 현재 AGBO는 넷플릭스와 NBC 유니버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애플 TV+ 등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영

상 스트리밍 서비스 및 극장 배급을 위한 영화·TV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게임업계, IP 확장 통해 엔터 영역 확장 = 현재 국내 게임시장은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영토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컴투스는 지난달 약 7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4.2% 확보했다. 협업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대, 블록체인·메타버스 사업 등에서 존재감을 키울 예정이다. 게임을 중심으로 드라마, 영화, 웹툰, 공연 등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에는 계열사인 크리텐처스와 함께 콘텐츠 IP 기반 컴퍼니 빌더(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육성하는 기업) ‘콘텐츠테크놀로지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음원 IP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인수한 ‘마이뮤직데이스트’ 등 여러 파트너사와 연계해 글로벌 K-POP 및 콘텐츠, 공연 분야에서 시너지 낼 것으로 기대 중이다.

크래프톤은 게임 IP를 다양한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IP로 지난해 영화 ‘그라운드 제로’에 이어 올해 ‘방관자들’, ‘붉은 얼굴’ 등을 공개했다. 소설을 원작으로 개발 중인 게임 ‘눈물을 마시는 새’ IP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아트북을 제작하기도 했다.

넷마블도 엔터테인먼트의 가능성에 지속해서 투자해오고 있다. 주요 주주가 CJ ENM인 데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디지털 휴먼으로 구성된 메타 아이돌 프로젝트도 내년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의 멤버인 디지털 휴먼 ‘제나’를 게임 ‘파라곤: 디 오버프라이프’의 신규 영웅으로 등장시켜 게임과 엔터를 넘나드는 모습을 연출했다.

반대로 하이브는 게임 산업으로의 진출을 선언했다. 하이브는 계열사 하이브IM을 통해 ‘인더섬 with BTS’를 출시해 글로벌 누적 가입자 650만 명 돌파하는 등 재미를 봤다. 전날 막을 내린 ‘지스타 2022’에서는 플린트와 맺은 ‘별이되어라 2:베다의 기사들’ 퍼블리싱 계약을 공개하며 게임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조성준 기자 tiatio@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준비금 증명’ 거부 “지갑 공개팬 투자자 보안에 문제”

“전 가상자산 법률·규제 적용”

美SEC 감시아래 문제 없을듯

업계 “준비금 증명, 묘책 아냐”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준비금 증명(PoR)’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19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그레이스케일 역시 자금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는 의견과 자산운용사와 거래소는 서로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 등이 혼재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준비금 증명’이 필요한 조치이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준비금 증명 요구가 거세진 원인은, 그레이스케일이 제네시스와 같은 DCG(디지털 큐런시 그룹)의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제네시스가 지난 16일 FTX 사태 여파로 상환 및 신규대출을 중단하면서 그레이스케일도 FTX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다른 이들에 의해 촉발된 패닉이 우리가 수년간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해온 보안 조치를 회피할 충분한 이유는 아니다”라면서 준비금 증명 및 지갑주소 공개를 거부했다. 대신 커스터디 업체 코인베이스가 보낸 증명서를 공개하며, “그레이스케일의 모든 가상자산 상품은 법률과 규제에 의해, 상품의 기반이 되는 가상자산의 대여 등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이 언급한 법률과 규제는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네이션(Nathan) 해시드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월가에서 트레이더로 일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SEC의 감시하에서 GBTC(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BTC 펀드의 수탁 지갑 주소가 외부로 노출되면, 펀드가 특정 시점에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하는지 역산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더 높은 호가를 부르게 되면 펀드는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지갑 공개 거부에 일조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전까지 문제가 생겼던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다”라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준비금 증명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비트코인 프라이빗키 보안 솔루션 업체 ‘카사’의 제임스 립 최고기술경영자(CTO)는 트위터 라이브 방송에서, “준비금 증명을 포함한 어떤 회계감사 방식도 보안 모델 자체를 바꾸진 않는다”라면서 “결국 이 같은 방식도 믿음을 전제로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FTX가 준비금 증명을 이미 도입했다면, 사태를 막기보단 투자자에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주는 것에 그쳤을 것”이라며 준비금 증명이 ‘묘책(Silver bullet)’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업계 관계자는 “준비금 증명과 지갑 공개보다 내부 자금 상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이번 FTX 사태는 내부 통제가 없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 제3의 FTX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업계가) 제도권에 진입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SKT-NTT도코모 ‘메타버스·6G·미디어’ 맞손

‘웨이브’ 콘텐츠 공동제작 모색

게임·애니메이션 IP 공동확보

SK텔레콤이 일본 대표 이동통신사업자인 NTT도코모와 메타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SKT는 NTT도코모와 메타버스·통신 인프라·미디어 사업 3대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메타버스와 통신 인프라, 미디어 사업 등 3대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콘텐츠와 기술, 서비스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SKT는 지난해 7월부터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NTT도코모는 올해 3월 일본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또한 메타버스용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K팝, J팝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해 양사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일 양국에서 인기있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공동으로 확보하거나, 기술 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 협력을 위한 정기 협의체의 운영도 논의한다. 단기적으로는 양사의 서비스 및 기술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사의 서비스를 연결하고 공동 마케팅을 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메타버스 서비스가 연결될 경우 이프랜드에서 중계하고 있는 K팝 가수의 콘서트를 NTT도코모의 서비스를 통해 일본 이용자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G 등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양사는 5G는 물론 5G보다 한 단계 진화된 5G 에볼루션(Evolution)과 6G의 주요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기술 표준을 함께 정립해 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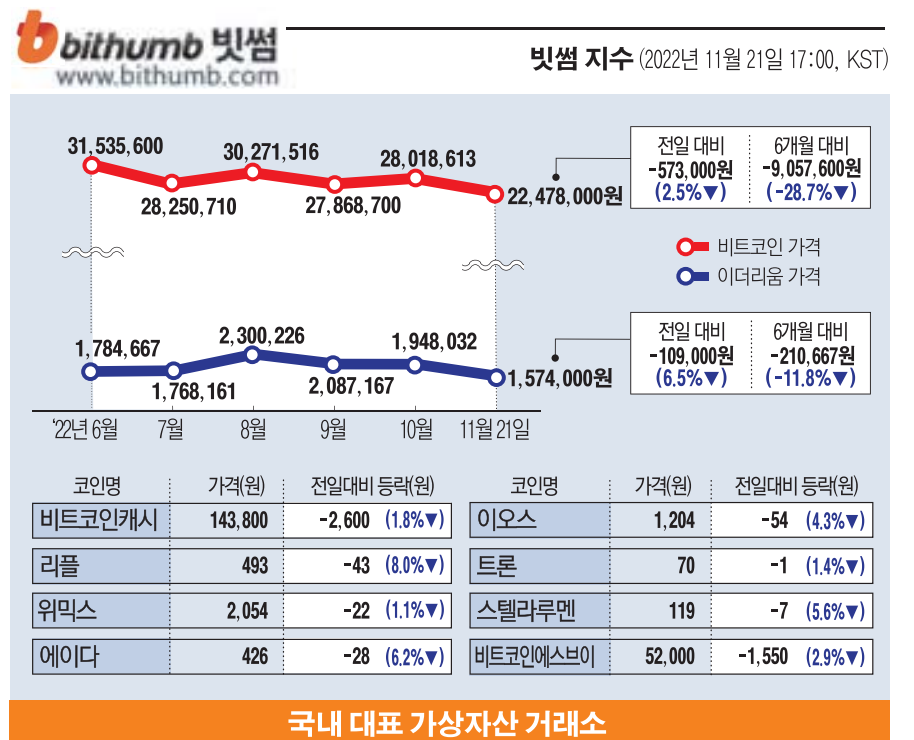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왼쪽)과 이이 모토유키 NTT도코모 사장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기로 합의했다.

콘텐츠웨이브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와도 협력해 일본 미디어 시장 진출을 위한 활로 개척에도 나선다. 양사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와 콘텐츠 제작·유통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영상 SKT 사장은 “이번 MOU는 통신·ICT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NTT도코모와 미래 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ICT 혁신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해

공부방이란 희망을 선물합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합니다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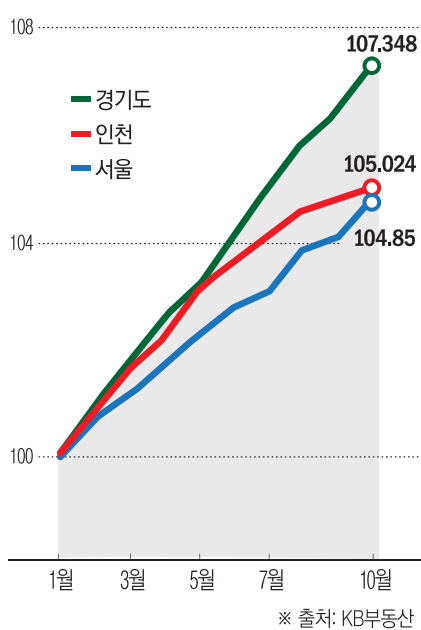
공부방 리모델링 지원사업 수혜가정 1호



“서울 피해 왔는데”… 경기지역 ‘월세 난민’ 속출 우려

**10월 아파트 월세 100만원
지난달 연초 대비 7.4%p 경증
서울 평균 127만원…격차 좁혀
매매 끊겼지만 월세 거래 활발
“금리인상 탓 꾸준히 가격 상승”**

연초 대비 아파트 월세가격 지수
(1월 가격을 100으로 볼때 변동 추이)



올해 경기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수도권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경기도로 주거지를 옮긴 전세 난민들이 이번에는 월세 고공행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연말을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됐고,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월세 수요와 공급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지역 월세 거주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월간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7.34를 기록해 지난 1월(100) 대비 7.3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4.85%p 올랐고, 인천은 5.02%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단순히 지수만 비교하면 올해 경기지역 아파트 월세는 서울보다 1.5배 더 오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평균 월세 역시 경기도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경기도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 1월 97만 원에서 지난달 100만 원으로 약 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월세는 124만9000원에서 126만6000원으로 1.4%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지역 내 주요 단지 월세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토교통

부 실거래가시스템 집계 기준 경기 수원시 광고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9월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50만 원에 신규 계약을 맺었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일 년 전인 지난해 9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 원 수준에 계약이 체결됐다. 보증금 1억 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180만 원에서 지난 8월 200만 원으로 올랐고, 현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40~250만 원 수준이다.

또 지하철 4호선 평촌역 인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59㎡형 역시 평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 수준에 시세를 형성했다. 지난해 10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0만 원 수준에서 월세 계약서를 쓴 것과 비교하면 일 년 만에 월 20만가량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안양시 동안구 D공인 관계자는 “요즘 금리 부담이 커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더 많다”며 “기존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 새로 이사할 집을 찾는 고객도 월세를 먼저 찾아 매매나 전세보다 월세는 가격 방어에 잘되는 편”이라고 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월세 거래는 집계가 끝난 지난 9월 기준 연내 최고 수준을 기

록했다. 이날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도 내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1만2545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1만482건)과 비교하면 약 19.6% 늘어난 수치다. 아직 신고기한(실거래 후 30일)이 남은 10월 거래량은 1만962건으로 9월 기록 경신이 확실시된다. 올해 유례없는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됐지만, 월세 거래만큼은 활발했다.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전입하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월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일 년 동안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수는 3만5537가구에 달한다. 또 지난해 통계청 집계 기준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거지를 옮긴 인구는 36만2116명으로 파악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 “매매와 전세시장과 달리 월세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격 조정 없이 꾸준히 올랐고, 특히 경기지역 수요가 몰리면서 더 가파르게 올랐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월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에는 매매와 전세시장과 같이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사의 이사회서 후임 결정 예정

하석주(사진)롯데건설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레고랜드 부도 사태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재무 부담을 키운 책임을 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 사장은 최근 회사 측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회사측은 사직 의사를 반려했다. 하지만 재차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사직 처리 및 후임 인사 선임은 롯데건설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하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사표는 이사회를 거쳐 조만간 단행될 롯데그룹 정기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 때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 사장의 갑작스런 사의는 최근 롯데건설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최근 레고랜드 부도 사태 등으로 지난달 말부터 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롯데홈쇼핑 등 그룹 계열사를 통해 1조 원가량의 자금 수혈을 받은 바 있다. 영업이익도 감소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1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 기준 롯데건설의 영업이익은 약 581억94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63억 6487만 원) 대비 40% 수준이다.

한편 하 사장은 1983년 롯데칠성으로 입사해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 등을 거쳤다. 지난 2017년 3월 롯데건설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 2018년 1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모아타운’ 가속도…마포·성동·종로 등 관리계획 수립 잔결음

마포구, 대흥·성산·망원동 3곳 긴급공고로 용역 입찰기간 단축

오세훈 표 도심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순항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마포구는 지난 19일 대흥동 535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긴급공고 형태로 발주했다. 마포구는 입찰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긴급공고로 냈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또 재원조달 및 단계별 집행계획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도 마련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추진배경에 대해 “이 일대는 사용승인 후 20~30년 이상이 넘는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집하고, 최근 신축된 주택이 혼합돼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며 “생활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이곳 이외에도 15일 성산동 160-4 및 망원동 456-6 일대 대상지에 관해서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긴급공고

**최근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한 모아타운 대상지**
※ 출처: 서울시



자치구	위치	면적
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2만2074㎡
마포구	성산동 160-4, 망원동 456-6 일대	16만7340㎡
성동구	마장동 457, 사근동 190-2 일대	14만1666㎡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6만4231㎡
강서구	방화동 592 일대	7만2000㎡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역 전경.

뉴스스

형태로 발주했다. 세 용역 모두 이달 입찰을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주민 공람 및 통합심의를 거치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만큼 사업 기

대감에 따른 거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마포구 대흥동 A 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거래가 딱 끊긴 상황”이라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문의조차 없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흥동 일대 빌라 매매 건수는 6월 3건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과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포구 이외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동구는 이달 초 마장동 457 및 사근동 190-2 일대, 종로구는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 관해 각각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에는 중랑구 면목동 사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등 모아타운 대상지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서울시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로써 4월 발표했던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전체 네 곳의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총 7000가구가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7곳을 추가로 선정한 만큼 향후 사업지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모아타운으로 선정한 65곳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4분기 아파트 거래 53% 직전 거래가격보다 하락

고금리와 고물가로 주택 매수 수요가 줄기면서 아파트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4분기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전국 기준 4분기 현재 직전 대비 5% 이상 거래가가 하락한 거래 비율은 37.7%로 집계됐다. 1~5%대로 내린 거래까지 합치면 53.4%로 하락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다. 4분기 서울에서 5% 넘게 내린 하락 거래는 전체의 51.6%에 달했다. 전국과 서울 아파트 모두 거래가가 5% 이상 대폭 하락한 비율은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8년 4분기(서울 47%·전국 32%) 기록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올해 3~4분기 수도권과 세종, 전국 광역시 지역에서는 하락거래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상승 거래는 크게 줄었다. 서울은 직전 대비 5% 이상 거래가가 상승한 거래 비율이 올해 4분기 12.4%로 역대 최저치였다. 직방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소위 급매가 아니면 매매되지 않는 하락 거래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고, 이러한 경향은 4분기 현재도 심화하고 있다”며 “여전히 높은 물가,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와 의 역전 등으로 하락거래 위주의 현 시장 상황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대치 미도아파트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35층 규제 첫 폐지단지 전망

준공 40년을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

이다. 21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날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대치동 ‘은마’ 아파트와 함께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35층 규제’ 폐지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폐지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내 확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열람

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 연내 시행되고,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에 50층이 적용·실현되는 첫 단지가 될 전망이다.

미도아파트는 양재전과 대치역·학여울역 특별역세권에 맞닿아 있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최고 50층, 3800가구 내외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예정이다.

박민용 기자 pmw7001@

“非은행 실적 높여라” 지적에… 고민 깊어진 금융지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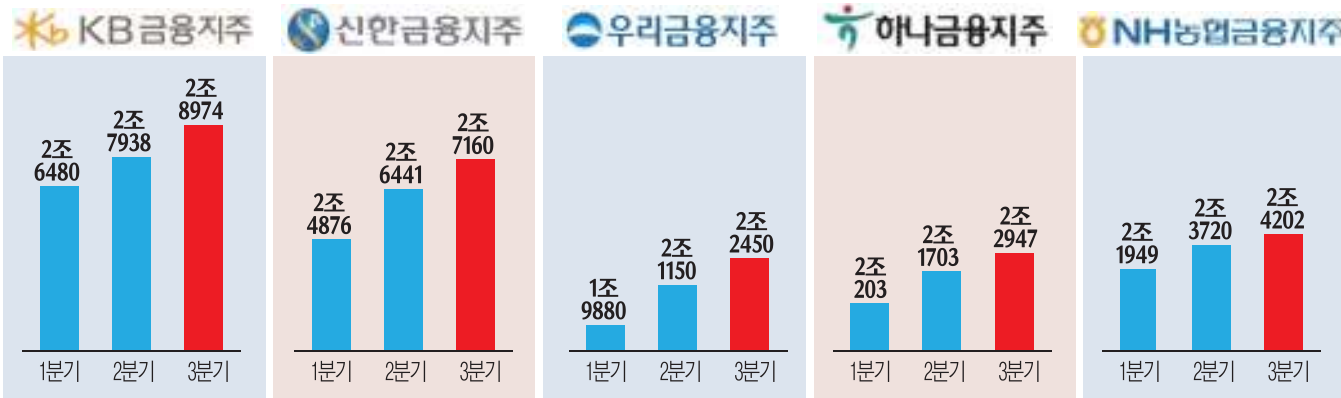
지난해 이자이익 비중 83%

고금리에 5대금융 이자이익 최대
3분기 누적 순이익 15.8兆 달해
세계 100대 금융사 60% 수준
이자에 매몰된 수익 구조 심각
KB ‘알뜰폰’·신한 ‘배달앱’ 진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의 이자이익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장기적으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만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안정적으로 그룹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시대에 금융지주가 과도한 이자 장사로 자신들의 배만 불렀다는 비난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이자이익은 12조5733억 원, 누적 이자이익은 36조73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지주별로 KB금융이 2조897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 2조7160억 원, NH농협금융 2조4202억 원, 하나금융 2조2947억 원, 우리금융 2조2450억 원 순이었다. 사상 최대

5대 금융지주 분기별 이자이익 (단위: 억원)



※ 출처: 각 사

이자이익을 앞세워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5조8261억 원에 달한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금융지주사들은 이자이익을 앞세워 공간을 채우고 있다. 문제는 실적 자체가 지나치게 이자이익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은 54조4000억 원이다. 이 중 이자이익이 44조9000억 원으로, 총이익의 82.5%에 달한다.

금융지주사의 이자이익은 대다수가 은행을 통해 벌어들인다. 생명보험, 증권, 캐피탈, 손해보험, 저축은행 등을 통해 거둬들이는 이자이익이 있지만, 은행을 통해

벌어들이는 비중이 비은행 전체보다 많다. 농협금융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이 6조9871억 원인데, 이 중 은행의 이자이익이 5조295억 원으로 72%에 달한다. 만일 은행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자이익에 매몰된 금융지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이 60% 수준인데,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이자이익 비중이 이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사들도 이 점을 인식하고 비은행 수익비중을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리브엠’을 통해 금융권에서 최초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했다. 기존 금융서비스에 통신서비스 융합을 추진해 알뜰폰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3년 새 가입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장 내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통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다. 10월 말 기준 회원 수 137만 명을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리브엠’이나 ‘땡겨요’ 모두 기존의 금융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의 진출이다. 그동안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다른 업종으로 진출이 제한됐다.

국민은행의 통신업 진출과 신한은행의

유통업 진출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사례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원칙을 내년 초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들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권 내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금융은 증권사 인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주 전환 이후 증권사 인수 의지를 내비쳐 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증권부문 등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무게감 있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도 올해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나금융도 지난 9월 롯데카드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며 카드 사업 경쟁력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하나카드가 롯데카드를 인수하게 되면 업계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도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꾸준히 외치고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하지만 규제 장벽과 대내외적 변수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하면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대한 시너지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실속 챙긴 신한라이프, 성대규 사장 연임 청신호?

3분기 실적 하락 전환했지만
신회계제도 앞두고 CMS 개선
오렌지라이프 통합 성공시켜
다음달 임기만료에 관심집중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성대규(사진) 신한라이프 사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은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IFRS17(신회계제도)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수치 경쟁 보단 실속을 챙겨 적절히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오는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성 사장은 금융위원회 국장, 보험개발원장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신한생명을 이끌어오다 지난해 신한라이프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신한라이프 대표에 올랐다. 신한금융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로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 바 있어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신한라이프의 3분기 실적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의미 없는 수치 경쟁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라이프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6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다. 증시 부진으로 인한 유가증권 처분이익

감소와 인력통합비용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IFRS17에서 중요시되는 계약 서비스마진(CSM)은 타 보험사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도입되는 IFRS17은 현재 원가로 평가되던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뜻한다. 우선 장부상 부채로 인식되지만, 향후 일정 부분 씩 부채에서 빠져 보험사의 이익으로 인식된다. 이에 IFRS17 적용 후 CSM 규모가 많은 보험사는 앞으로 거둬 이익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신한금융지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IFRS17 준비 마지막 단계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는 IFRS17 관련 내부 관리, 외부감사 최종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IFRS

17이 도입되면 자본 규모는 2배, CSM은 7조 원, 순이익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생보업계 선두권 보험사와 비교하면 자산 대비 선방한 성적이다. 삼성생명은 IFRS17 전환 시점에는 CSM이 10조 원 가량이라고 발표했다. 업계 2위 한화생명도 8조 원 가량이 예상된다.

저축성보험을 판매해 수치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점도 호평이 나오는 이유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5%대 저축보험 판매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저축보험은 중장기적으로 역마진 우위가 있지만 현금을 확보해 건전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금리 저축보험을 선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 사장은 임기 중 최대 과제였던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화학적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성 사장은 지난해 두 회사를 통합하면서 잡음을 줄이기 위해 연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합동 이벤트를 진행하며 내부 결속에 신경을 기울였다. 실무적 난관으로 꼽히던 전산 시스템 통합도 완료했다. 예민한 인사와 조직개편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8월 인사제도를 정비하며 물리적 화합도 마무리했다. 서지연 기자 sij@

메리츠금융, 화재·증권 완전 자회사 편입

주주가치 제고 최우선 가치
내년 순이익 50% 주주환원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21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미래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메리츠화재와 증권 양사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자본배분을 통해 그룹 전반의 유기적인 재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증권의 탈소싱 능력과 화재의 장기 투자 구조를 결합해 계열사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를 통한 의사결정 간소화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자본 효율성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우선 경영철학인 주주가치 제고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 측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통합된 메리츠금융지주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돌려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사의 최근 3개년 주주환원을 평균(지주 27.6%, 화재 39.7%, 증권 39.3%)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메리츠금융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중기적으로(3년 이상)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메리츠금융지주 겸 화재 대표이사인 김용범 부회장은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6월까지 메리츠화재가 많은 이익을 냈고 증권에서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메리츠금융지주처럼 3개사가 모두 상장돼있는 경우에는 투자까지 시간이 지연된다”며 “최근에 경영환경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거하는 차원”이라고 포괄적 주식교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는데, 경영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빨리 제거하는 것과 규제자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강화된 주주환원과 반대매수청구권을 감당할 수 있는 이익체력이다”라며 “이제는 포괄적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조정호 회장도 기업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천명했고, 현재 상태에서 조정호 회장의 지주 지분율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면 47%로 하락하고 세금을 내면 20%도 남지 않는다”며 “일반 주주 간의 이해상충도 없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유재훈 신임 예보 사장 “선제적 위기대응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서울 예보공사 본사서 취임식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전력을 다하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은 2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신임 사장의 취임식은 임명 12일만에 열렸다. 노조는 그간 유 사

장 임명에 반대하며 출근을 저지해왔다.

이날 유 사장은 “고물가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실질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는 복합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예보의 더 큰 역할을 요구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과제로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체계 개선 △금융의 복합화 및 디지털화 위협으로부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유 사장은 기존 예보의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시감시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가지표 개발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10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은행은 NH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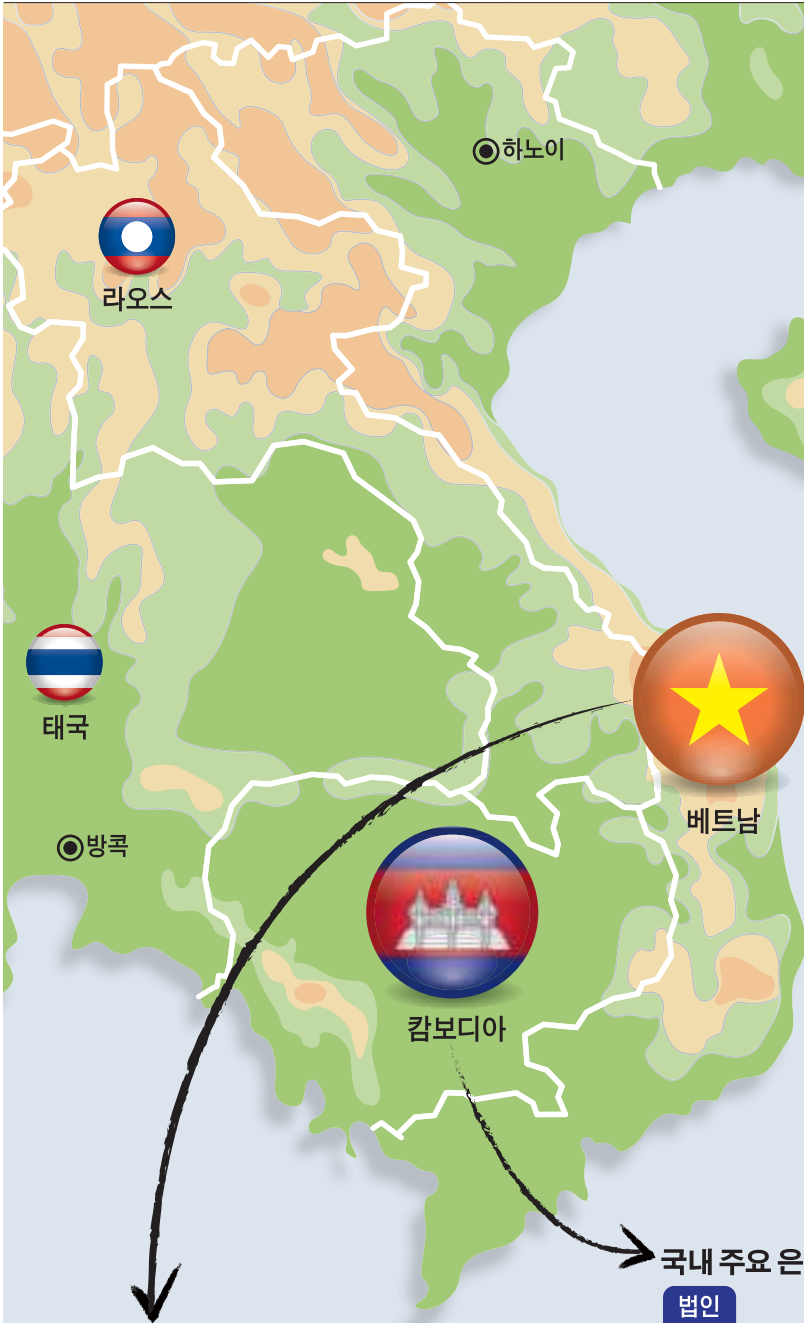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가장 컸던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3개월 연속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으로 이름을 올렸다.

2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10월 정척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제외한 NH농협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차(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1.56%포인트(p)다.

NH농협에 이어하나은행(0.94%p), 신한은행(0.89%p), 우리은행(0.77%p), KB국민은행(0.67%p) 순으로 가계 예대금리차가 컸다. NH농협은행은 8월(1.73%p)과 9월(1.85%p) 이어 석 달 연속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 1위를 기록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디지털 사업 확장·현지銀 인수... K-리딩뱅크 '퀀텀 점프' 나선다

신남방서 기회 찾은 韓 은행들

“젊고 역동적이다.”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는 신남방국가들. 그중에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핀테크 등 신산업 발전속도가 그 어느 곳보다 빠르다. 19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한국과 똑 닮은 모습이다.

이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이 깊다. 특히 우리 은행들은 한계에 직면한 국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이곳에서 찾고 있다. 성과도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출한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우리 은행들은 리딩 금융사로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내 은행들은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본지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직접 찾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

국내 주요 은행 캄보디아 진출 현황

국내 주요 은행 베트남 진출 현황

법인	지점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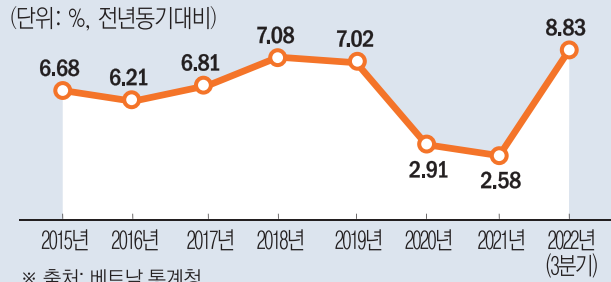
법인	지점	사무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베트남 한국계 금융사 현황 (단위: 개)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은행	3	6	2
보험	5	1	3
증권·자산운용사	10	-	10
카드사·캐피탈·신용평가회사·신용보증기금 등	4	-	3

총 46

베트남 경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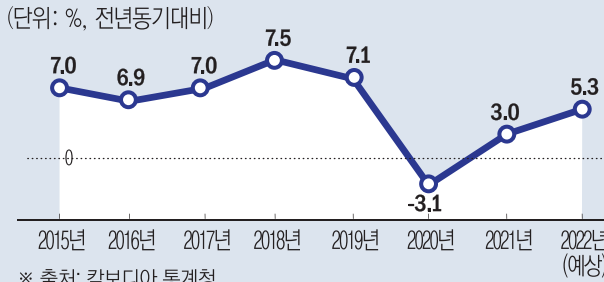


캄보디아 한국계 금융사 현황 (단위: 개)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은행	6	1	1
보험	-	-	-
증권·자산운용사	3	-	-
카드사·캐피탈·신용평가회사·신용보증기금 등	4	-	-

총 15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베트남

첫 진출 신한 작년 순익 1억달러
디지털 전담 ‘퓨처뱅크그룹’ 출범

캄보디아

프놈펜, 편의점보다 은행 더 많아
KB, 현지 4위 프라삭 뱅크 인수

는 국내 은행들을 만나봤다.

올해는 한-베트남 국교 수립 30주년이 다. 1992년 국교 수립 이래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21년 161배로 급성장했다. 베트남은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4대 교역 대상국이자 아세안 제1위 교역 대상이다.

활발한 교역만큼 금융 분야에서도 양국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은행들은 그동안 양적·질적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가장 먼저 베트남에 진출해 법인을 설립한 신한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신한은행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 대부분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베트남 점포 총자산은 약 184억 달러 규모로 전년(150억 달러) 대비 33억 달러가량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억2000달러로 2020년(2억3000달러) 대비 약 1억 달러가 늘었다.

베트남 양대 경제 거점인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에 나선 우리 은행들은 경쟁력 확대를 위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다. ‘K-디지털’을 내세운 신한은행은 디지털 사업 전담 조직인 ‘퓨처뱅크그룹’을 출범시키며 현지 은행과의 한판 승부를 나섰다. 하나은행은 자본 15%를 보유한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과 손잡고 경제 확장에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농업금융의 강점을 통해 저변을 넓히고 있다.



KB국민은행 캄보디아 법인. 김범근 기자

동남 아시아 5개국을 흐르는 메콩강 하류에 있는 캄보디아는 글로벌 금융 각축장이다. 150여 개 달하는 국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수도인 프놈펜에는 편의점보다 은행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프놈펜 시가지 곳곳은 고층빌딩이 건설이 한창이다. 코로나19로 멈춰선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는 이달 10~13일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관광 산업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은행들도 다시 정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한은행이 2007년 신한크메르은행을 캄보디아에 출범시키면서 국내 은행 최초로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들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저축은행들까지 캄보디아 시장 진출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4위 은행인 프라삭 뱅크의 자본 100%를 인수한 KB국민은행은 내후년 초까지 현지 캄보디아 법인과 프라삭 뱅크를 합친 통합 상업은행을 출범한다. 순이익 기준으로 지난해 7위를 기록했던 우리은행도 내실 다지기에 돌입한다. 우리은행은 성장과 내부통제 투 트랙 전략을 기반으로 내년 초 자산규모 톱 10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하노이·호찌민(베트남)=문선영 기자 moon@
프놈펜(캄보디아)=김범근 기자 nova@

“글로벌 금융 각축장서 뿌리내려... 국내 금융사 진출 적극 도울 것”

임 춘 하 금융감독원 베트남 하노이사무소장

신한은행이 1993년 국내 은행 중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총 11개의 은행이 베트남 시장에 발을 디뎠다. 캄보디아에서도 2007년 신한크메르은행이 출범하면서 우리 은행들의 진출이 줄을 이었다.

국내 금융사들의 신남방 시장 진출에 발맞춰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3년 외국 금융감독당국 최초로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금감원 하노이 사무소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을 지원하는 유일한 금감원 해외 사무소다.

하노이 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 임춘하 사무소장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에 대해 “우리 금융사들이 현지 시장에서 뿌리를 완전히 내렸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꽃을 피워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는 이들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은 세계 각국 은행들의 진출 경쟁으로 이어졌고, 현재 글로벌 금융사들의 각축장이 됐다.

특히 급성장한 국내 은행들은 베트남 금융당국은 물론 현지 은행들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베트남 현지 금융당국은 최근 몇 년간 ‘자국 금융사 보호’를 위해 외국계 금융사의 ‘인허가’ 문제를 까다롭게 다루면서 국내 은행의 규모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은행들은 수년째 법인 법인 전환 허가를 기다리는가 하면, 사무소의 지점 전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소장은 “국내 은행들의 현지화를 위

베트남, 자국 은행 보호 나서 현지 법인 전환에 어려움 커 디지털 집중... 경쟁력 키워야

해선 법인 전환이 적극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부실 은행에 대한 정리가 시급한 베트남 당국에서 외국계 은행의 영업인허가보다는 부실은행 매각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임 소장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이 마음껏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베트남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당국에 우호적이다. 선진 금융감



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임춘하 금융감독원 베트남 하노이사무소장을 만났다. 문선영 기자

독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 금융당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베트남 중앙은행 등과 우리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지식공유를 공유하며 지

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임 소장은 “베트남 금융당국과의 세미나·실무협의를 확대하면서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및 현지 영업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베트남중앙은행에 전달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긴밀한 협조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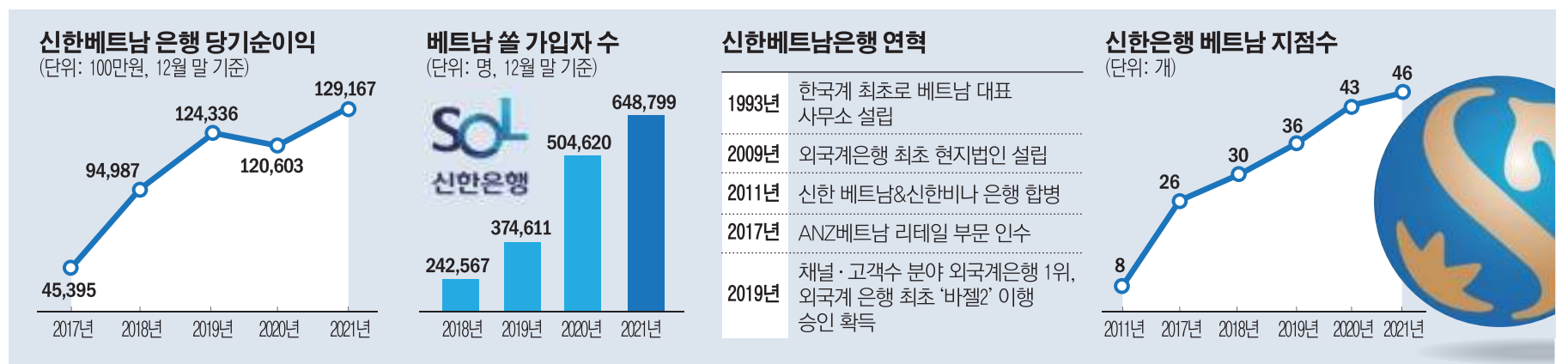
그러면서 은행들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베트남은 젊은 인구구조와 강력한 정부 지원, ICT인프라(2021년 기준 개인 인터넷 이용률 74.2%)의 급속한 개선 등으로 디지털 환경이 매우 좋은 편”이라며 “무엇보다 베트남 정부가 은행 산업의 디지털화에 매우 적극적이다”고 설명했다.

하노이(베트남)=문선영 기자 moon@

‘베트남 외국계 1위’ 신한銀 “디지털로 제2의 도약”

현지 정부 비대면 실명제 맞춰 서비스 도입... 쓸 가입자 늘어 대출, 30분 내 신청·실행 가능

퓨처뱅크 예산·사업 신속 대응 상품·서비스 기획~판매 소통 현지 플랫폼 업체와 제휴 강화



“제2의 도약” 디지털 역량 강화로 이뤄낸다.”

베트남 외국계 1위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신한은행은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더이상 외국계 은행은 경쟁자가 아니라는 신한은행이 현지 은행과 경쟁하기 하기 위해 꺼낸 카드는 ‘디지털 경쟁력’이다.

정경원(사진) 신한은행 퓨처뱅크 그룹장은 “신한은행이 현재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나,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는 그간의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에 당행은 디지털 부문에 많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발 빠르게 나선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춰 외국계 은행은 물론 현지 은행보다 한 발 앞서 디지털 금융 확대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비대면 실명확인(e-KYC) 제도가 도입했는데, 신한은행은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e-KYC 도입 과정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에 신한은행의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며 협조하기도 했다.

한발 앞선 신한은행의 대응은 곧 성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모바일 통합 플랫폼인 글로벌 쓸(SOL)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급증한 것이다. 올 하반기 들어서는 월 5000명가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전체 최초 신규고객 중 1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난해부터 올



해 10월까지 누적 7만8500명 가량의 고객을 비대면 채널로 확보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한은행은 지난달 쓸의 UI(사용자 환경)/UX(사용자 경험)를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정 그룹장은 “빠른 데이터 처리와 신속한 화면전환 등 실행속도에 중점을 맞춰 앱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도 선보였다. 지난 8월에 베트남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디지털 컨슈머론(이하 DCL)을 출시한 것이다. 정 그룹장은 “모든 과정을 100% 비대면으로 자동화, 디지털화하면서 최대 30분 이내에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마칠 수 있다”면서 리테일 신용대출 상품 및 서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와 사회 초년 직장인의 요구를 반영해 초단기 소액대출 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신속한 디지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 전담 조직인 ‘퓨처뱅크 그룹’이 자리하고 있다. 퓨처뱅크 그룹은 은행 속 은행(BIB·

Bank In Bank) 형태의 독립 조직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당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호찌민시에서 열린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했는데, 퓨처뱅크 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퓨처뱅크 그룹의 예산 책정이나 각종 사업 추진시 결재 등 부문까지 독자적인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 그룹장은 “리테일 사업부문은 물론이고 디지털전략본부와 ICT(정보통신 기술)본부 등 각 사업 부문별로 디지털 매트릭스 협의회를 매월 운영하면서 전사적으로 디지털 상품·서비스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소통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신한은행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현지 업체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현지 1위 메신저 SNS 플랫폼인 잘로(Zalo)와 전자지갑 플랫폼 잘로페이에 계좌를 연동하기도 했으며, 베트남 1위 승차 공유 업체인 그랩(Grab)의 전자지갑 플랫폼인 모카(Moca)와 제휴도 맺었다. 특히 모모(MoMo)·티키(Tiki) 등과는 디지털 브랜치 출범을 위해 논의 중이다. 플랫폼 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의 브랜치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금융 상품 안내와 상담뿐만 아니라 제3자 e-KYC 활용해 금융 상품 가입 프로세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호찌민=문선영 기자 moon@

“베트남, PB고객 서비스 제공 한계 채권·뮤추얼 펀드·보험투자 공략”

빅 응옥 신한베트남은행 본부장



“신한베트남은행 PB서비스의 최대 강점은 ‘코리아 커넥션’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만난 응우옌 빅 응옥(NGUYEN BICH NGOC·사진) 신한베트남은행 PWM본부장은 신한은행의 경쟁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세번째로 투자 규모가 큰 나라다. 사업을 하는 베트남 부자들에게 있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응옥 본부장은 신한은행이 한국계 은행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베트남에 PB서비스를 선보였다. 2017년말 호주계 은행 안즈(ANZ)의 소매금융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PB 시장에도 본격 발을 들인 것이다. 응옥 본부장은 안즈에서 WM사업을 담당했다.

두 은행간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응옥 본부장은 “신한은행은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그것을 성과로 잡아낸다”면서 “일을 하는데 있어 매우 유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리천장’이 아직 견고한 베트남에서 여성으로서 임원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신한은행의 유연

한 조직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 사실 베트남 금융시장에서 PB고객들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은 한계가 있다. 현재 베트남 규정에 따르면 투자상품의 유통은 증권 및 자산 관리 회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다른

조세제도 탓에 한국에서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도 베트남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현지 맞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응옥 본부장은 “현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및 보험 투자 연계 상품 등 고객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비금융 부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고객들에 대한 건강관리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응옥 본부장은 “코로나 대응법 등을 공유하면서 고객은 물론 고객의 가족들까지 관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응옥 본부장은 강조했다. 현신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WRM(자산 관계 관리자)들이 있어 신한은행 PB서비스가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호찌민=문선영 기자 moon@



무역 리스크 정답은 K-SURE

해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정답은 언제나 K-SURE입니다.

“불황엔 현금” 10대기업 올 유동자산 90兆 더 쌓았다

곳간 채우는 상장사들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 확산 공포에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패닉에 빠지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을 쌓고 있다. 앞으로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팔 수 있는 자산은 닦치는 대로 팔아치워 현금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덕분에 빚 상환 능력도 좋아졌다.

반면 수익성 악화로 신용 위험 우려가 커진 곳도 많다.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온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거진 경기 침체의 위기로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실물경제 문제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LG엔솔, 지급여력 가장 좋아 = 21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지 취재 결과, 시총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지난해 말 159.40%에서 올해 9월 말 167.64%로 늘었

시총 상위 10개사 지급여력 쑥 부채보다 유동자산 증가폭 커

SK가스 ATAS 지분 매각 이어 롯데케미칼 850만주 신주 발행

장기불황 대비 현금확보 나서

다.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빚보다 같은 기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1.59배에서 1.67배로 늘었다는 뜻으로, 기업의 유동성이 개선됐다는 뜻이다.

통상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한 지급능력 보여주는 지표다. 분모인 유동부채를 줄이거나, 분자인 유동자산을 늘릴수록 숫자가 개선되는 게 특징이다.

10개 기업(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SDI, 현대자동차, 네이버, 기아, 카카오)의 지난 9월 기준 유동자산은 522조

4170억 원으로, 지난해 말(416조6522억 원)보다 86조7648억 원이 많다. 같은 기간 유동부채는 230조3441억 원에서 258조7605억 원으로 28조4162억 원 증가했다. 유동부채가 증가한 폭(12.33%)보다 유동자산(20.82%)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유동비율이 가장 크게 개선된 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다. LG엔솔은 9개월 새 유동자산이 11조7126억 원 늘었는데, 이는 대부분 기타수취채권의 증가(4조4650억 원)에 기인했다. LG엔솔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기타수취채권 중 금융기관 예치금이 1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초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면서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도 유동비율이 247.58%에서 294.16%로 올랐다. 유동자산이 32조7174억 원 늘어났는데, 이중 절반 수준(15조9354억 원)의 증가분이 재고자산이었다.

이 외에도 LG화학(135.53%→195.19%), 카카오(143.90%→157.12%) 등의 유동비율이 개선됐다.

◇현금 확보 나선 기업들 = 금리인상의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신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마련 성격이 컸다면 지금은 장기 불황에 대비해 안정적인 현금 확보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터키 유라시아해저터널(ATAS) 지분 전부를 카타르 국부펀드에 매각한다. 매각 대금은 약 1400억 원 규모다. 두산 역시 두산에너지 지분 중 일부인 4.47%를 처분해 5722억 원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주당 13만 원(예정발행가)에 신주 850만주(보통주)를 발행해 총 1조105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자회사 롯데건설에 약 6000억 원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5000억 원을 대여해주고, 총 2000억 원 규모의 롯데건설 유상증

자에도 참여해 876억 원을 출자한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줄어 들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계속될 경우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적 악화로 신용도가 낮아진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해 파산하면 주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신용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한꺼번에 자금시장에서 현금 조달에 나설 경우 은행의 자금 압박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3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신용 등급 하향 검토 리스트 등에 따르면 현재 각 사는 이미 10~20개 기업을 등급 강등 후보군에 올려놓은 상태다. 롯데 계열사가 최근 등급 하향 후보군에 오른 대표적 사례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내년 경기둔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용등급 하향 압력으로 그만큼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증시부진에 시총 300兆 독 1년 새 1兆클럽 ‘49곳 탈락’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우려로 국내 증시가 내려앉으면서 ‘1조 클럽’에 가입했던 기업 수가 1년새 49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조 클럽 상장사들의 시총도 325조 원 증발했다.

21일 이투데이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상장사는 증가 기준 중 239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88개 대비 20.5%(49개) 줄어든 수준이다. 미국에서 ‘빌리언 달러 클럽’으로 불리는 시총 1조 클럽은 보통 초우량 기업을 가리키는 기준으로 통용된다.

연말 기준으로 올해 239개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이긴 하나 감소폭도 가장 컸다. 직전 해가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하

시총 1兆 288개사→239개사 금양·삼천리 등 17곳은 가입

면 증시가 1년새 크게 위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조 클럽 상장사는 2014년 177개, 2015년 190개, 2016년 182개, 2017년 217개, 2018년 193개, 2019년 194개, 2020년 233개, 2021년 288개를 기록 중이다.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추세가 4년만에 꺾이게 된 셈이다.

1조 클럽 상장사들의 전체 시총은 1859조4667억 원으로 지난해 말(2185조4067억 원) 대비 325조9400억 원(14.9%) 줄었다.

기관·외인 vs 개미… 공매도 다른 길

외인·기관 20% 내외 줄이는데, 개인은 거래액 소폭 늘어

‘공매도 금지’를 외쳐 온 개미(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5541억 원이었다. 이달 21일까지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4302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22.37%가량 감소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외인 10월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3945억 원에서 이달 3016억 원으로, 기관은 10월 1489억 원에서 1194억 원으로 각각 23.55%, 19.78% 공매도 거래액을 줄였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추이에는 큰 변동이 없다. 10월 하루평균 107억 원이었던 개인 공매도 거래액은 11월 109억 원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특정주식

가격이 단기간 과도한 상승을 보일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가 하락에 거는 투자자 전체적인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국내 주가 하락을 이끈다고 지적해왔다.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공매도에 진입장벽이 높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시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일단 예의주시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기자 pmk8989@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와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98포인트(1.02%) 내린 2419.50으로, 코스닥은 전장보다 13.35포인트(1.82%) 내린 718.57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4.4원 오른 1354.7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2019년 신약 ‘유데나필’로 주가가 급증했던 메지온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메지온의 시총은 지난해 말 기준 1조9322억 원에서 올해 지난 18일 기준 3596억 원으로 약 1조5000억 원(81.3%)이나 감소했다. 디어유는 지난해 말 시총이 1조7999억 원에 달했으나 최근 6527억 원으로 1조1452억 원(63.6%) 대폭 감소했다. 위지

웍스튜디오도 시총이 지난해 말 1조7007억 원에서 최근 7440억 원으로 줄었다. 1년새 56.2% 감소한 수치다.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도 올해 실적 부진에 시달리며 시총이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말 1조6397억 원에서 최근 6444억 원까지 내린 상태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1조 클럽에 새

로 가입한 기업도 있다. 올해 새로 기업공개(IPO)로 진입한 곳을 포함 총 17개 상장사가 시총 1조 원을 넘겼다.

특히 금양(649%), 삼천리(265%), 동원산업(185%), 대성홀딩스(132%), 서울가스(111%) 등은 지난해 말 대비 두배가 훌쩍 넘는 시총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KRX 증권·파생상품 우수논문상

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제12회 KRX 증권·파생상품 우수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정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 김솔 한국외대 교수, 조호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최병욱 건국대 교수, 이우백 방통대 교수, 박찬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 순.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블루칩 모아… ‘코스닥 글로벌’ 지수 출범

코스닥 51개사 편입 확정

코스닥시장의 블루칩 기업들을 선별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제도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념식을 열고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의 출범을 선언했다. 총 51개사가 편입 대상 기업으로 확정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은 편입기업에게 축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 “연계상품개발, 해외IR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코스닥 글로벌’ 편입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선보인 ‘코스닥 글로벌’ 지수는 편입기업을 구성종목으로 해서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했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의 시총 합계는 총 78조 원으로, 코스닥 전체 시총(336조 원)의 23%를 차지한다.

섹터 분포는 △반도체(15사) △서비스·컨텐츠(14사) △제약·바이오(11사) △제조업(11사) 등 코스닥을 대표하는 산업군에서 고르게 편입했다.

이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의료·바이오)가 전체 중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제조업), 카카오게임즈(서비스·컨텐츠), 리노공업(반도체)이 해당 섹터에서 각각 시총 1위를 차지했다. 박상민 기자 si2020@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신한 청년 포텐 프로젝트가 만들어갈 미래, AI로 그려보았습니다



AI 입력 키워드:

청년들이 사는 곳을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꿈을 고민하는 세상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빛나는 아이디어로 전세계를 놀라게 하는 세상 ...

*광고에 쓰인 이미지는 AI 아트 생성 프로그램 Midjourney의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삼겹살만 33억 팔렸다… 홈런 친 정용진 ‘쓱세일’

이마트, 계획 대비 140% 매출
계란 완판·생활용품 5배 늘어
SSG닷컴, 행사 기간 20% 신장
G마켓까지 매출 상승 이어져

프로야구 SSG랜더스 구단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준비한 대규모 할인행사 ‘쓱세일’이 흥행에 성공했다. 이마트는 계획 대비 140% 매출을 달성했고 SSG닷컴도 매출이 20% 신장했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이마트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쓱세일’에서 매출이 계획 대비 140%를 달성하며, 지난해 11월 3주 차 금·토·일 대비 2.1배로 증가했다.

이마트가 한 달 치 물량 230톤을 준비해

40% 할인 판매한 삼겹살·목살은 사흘간 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이판란(총 60구)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9980원에 판매해 전량 완판되며, 계란 전체 분류 160.7%의 매출 고신장을 견인했다. 또한 2개 구매 시 1개 추가 증정했던 봉지라면은 5배, 참치, 골뱅이 등 1+1 통조림은 6배 매출이 늘었다. 전 품목 1+1의 50% 할인된 세제,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은 전년 대비 4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매출이 상승했다.

이마트, 쓱닷컴 등 신세계그룹 19개 계열사가 참여한 할인대전 기간 이마트에는 인파가 북적였다. 이마트의 연수점의 경우 첫날인 18일 몰려드는 인파에 정오부터 1시간 20분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일부 인기 품목은 품절 현상도 보였다.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인 피코크 밀키트 매



18일 오후 2시 이마트 영등포점 계산대에서 고객들이 대기 줄을 서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대란의 짬뽕, 탄탄라면 등은 매대가 텅 비어 있거나 이마트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쓱배송’ 역시 일찌감치 마감됐다. 이마트는 쓱세일에 앞서 많은 인원이 몰

릴 것으로 보고 전국 매장에 안전 지침을 내렸다. 전국 이마트는 개점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인파가 몰려다 출입구 일부를 통제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출 많은 연수점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해 문을 닫고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다”며 “오후 1시 20분부터 100명씩 입장을 재개했고 오후 2시부터 정상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쓱세일 흥행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SSG닷컴은 올해 쓱세일 행사 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신장했다. 신선, 가공식품 등 장보기부터 라이프스타일에 이르는 전 상품 영역에서 판매량이 상승했다. 장보기(그로서리) 매출은 38% 늘었고, 행사 상품 ‘당도선별 감귤’, ‘이맛쌀’, ‘이판란’ 등은 많은 고객이 집중되며 ‘그로서리 매출 TOP10’에 올랐다. 겨울철 대비 핫딜 가

격에 선보인 ‘구스다운’, ‘퍼퍼 재킷’ 등이 인기였고, 가전에서는 ‘애플’, ‘다이슨’ 등 인기 상품 위주로 구매가 증가했다.

18일 정오 판매를 시작한 2022년 시즌 통합 우승 기념 야구 굿즈 패키지 ‘챔피언 플레이트’ 4종 모두 10분 내에 완판됐다. 한국시리즈 우승 레플리카 반지, 친필 사인 굿즈, 홈경기 사인회 초청 등이 포함된 ‘블랙 에디션’은 165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수 초 내 모두 팔렸다. ‘SSG랜더스 통합 우승 고객감사제’를 연 G마켓에서도 행사 기간 사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스포츠의류·운동화는 20%, 스포츠가방은 75%, 구기·라켓 용품은 12% 판매량이 증가했다.

SSG닷컴은 행사 분위기를 잇기 위해 23일까지 신선·가공식품, 일상용품 할인전을 연다.

조남호 기자 spdran@

김혜지 기자 heyji@

소비자가 원하면 꺼내줘라?… ‘빨대’ 금지’ 현장 혼선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1년 계도기간… 소규모 매장 제외
‘요구할 경우’ 단서에 항의 우려

이달 24일부터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이달 초 갑자기 정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 종이컵,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중단되고, 종량제나 종이봉투 등을 따로 구매해야 한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33㎡ 이하 규모 매장과 배달·포장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위반했다고 무작정 단속되는 건 아니다. 1년의 계도기간 때문이다. 환경

부는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소비자가 원할 때 설명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영업자 보호와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에 자영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급작스런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오해와 불만 섞인 항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커피 전문점들은 이미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점주 재량에 맡기는 곳도 적지 않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와 뚜레쥬르 등은 수년 전부터 일부 매장에 종이빨대를 도입해왔고, 올해부터 전 매장에서 종이빨대를 도입했다. 이디야는 24일에 맞춰 종이 빨대 발주를 시작했다.

프랜차이즈마다 정책이 달라 플라스틱 빨대를 요구하는 고객 항의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A커피전문점 직원은 “법 적용을 미뤘지만, 본사 정책으로 우리 점포는 종이빨대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안그래도 종이 맛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종이빨대를 꺼려하며 비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본사 정책과 고객 요구 사이에 끼여 난감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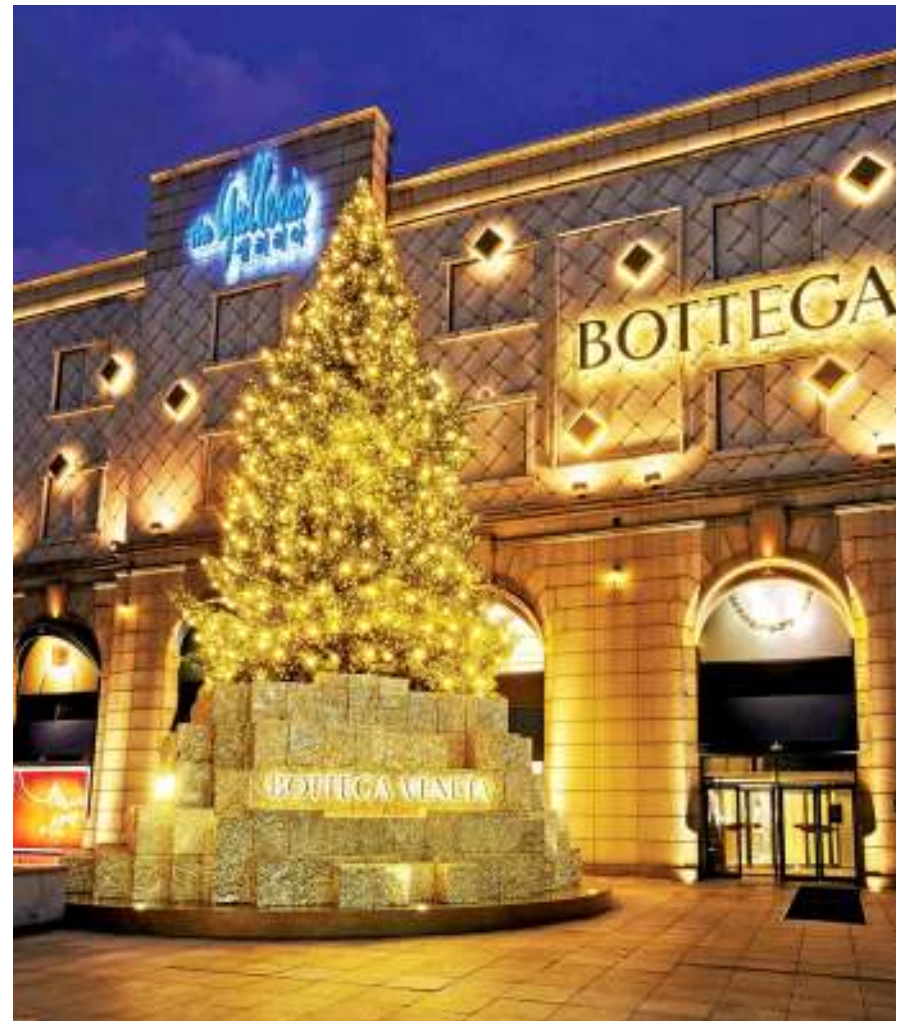
B커피전문점 점주는 “본사에서는 종이 빨대 비용을 보조해준다고 하지만,

아차피 다른 비용이 부과되며 전체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인근 카페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데 똑같이 통일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종이빨대를 직접 구입해야 하는 개인 카페 운영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C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는 “당연히 24일부터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계도기간을) 몰랐다”며 “플라스틱 빨대보다 훨씬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해놨는데 돈만 버렸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에서 통종이빨대는 300개에 7500원 정도로 플라스틱 빨대 가격보다 2~3배 비싸다. 옥수수 전분 등 친환경 빨대는 1만 원대를 훌쩍 넘는다.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라는 단서 조항이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구의 D카페 점주는 “원칙은 종이빨대 제공인데,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주라는 규정이 혼동된다”면서 “종이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가격이 3배나 차이인데 누가 비용을 감내하고 처음부터 종이빨대를 제공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주현 기자 jooh@



갤러리아백화점, 보테가 베네타와 크리스마스 트리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외관 장식을 선보인다
고 21일 밝혔다. 올해 크리스마스 조형물은 이탈리아 럭셔리 패션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와 함께 갤러리아 명품관 보테가 베네타 남·여성 통합 매장 리뉴얼 오픈 1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약 14m 높이의 대형 생목(生木) 구상나무로 제작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선보였다.

사진제공 갤러리아백화점

맥도날드 ‘맥모닝’ vs 버거킹 ‘킹모닝’… 햄버거 ‘조식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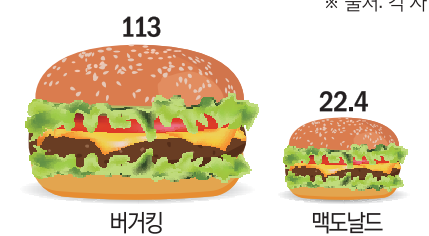
버거킹, 2년 만에 ‘킹모닝’ 재출시
올 3분기 오전 매출 113% 늘어
맥도날드 ‘맥모닝’ 꾸준한 인기

맥도날드 ‘맥모닝’으로 대표되는 햄버거 조식에 버거킹이 ‘킹모닝’으로 맞불을 놔다. 불황에 5000원대의 햄버거 조식 메뉴 인기가 높아지면서다.

버거킹은 아침에만 맛볼 수 있는 ‘킹모닝’을 2년 만에 새롭게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킹모닝’은 계란이 두 개 들어가 풍성한 더블 오믈렛과 부드러운 소프트버닝이 만나 아침에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식감이 특징이다. 오전 한정 메뉴로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판매된다. ‘오믈렛 킹모닝’과 더블 오믈렛에 베이컨과 토마토, 양상추가 추가된 ‘BLT 오믈렛 킹모닝’ 2종이다. 가격은 ‘오믈렛 킹모닝’ 단품 3900

버거 브랜드 아침시간대 매출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출처: 각 사



원, 콤보 4500원, ‘BLT 오믈렛 킹모닝’ 단품 4900원, 콤보 5500원이다.

버거킹은 통학과 출근을 하는 학생 및 직장인이 늘면서 간단한 조식 메뉴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어 ‘킹모닝’ 재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전 매출도 늘었다. 올해 3분기 버거킹 오전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약 113% 증가했다.

대표 햄버거 조식 메뉴는 오전 10시 30분까지 즐길 수 있는 ‘맥모닝’이 꼽힌다. 맥머핀과 해시브라운, 음료 포함 세트 메

뉴가 4000~4700원이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맥모닝 매출은 작년 3분기 대비 61.9% 증가했다. ‘맥모닝’ 판매로 맥도날드 오전 4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전체 매출도 22.4% 상승했다.

맥도날드는 지난 9월 또 다른 조식 메뉴 ‘맥그리들’을 들여왔다. 기존 ‘맥모닝’ 대표 재료인 ‘잉글리시 머핀’ 대신 구운 팬케이크 ‘핫케이크 번’이 사용됐다. 여기에 베이컨, 소시지 패티를 더했다. 맥그리들 출시 후 한 달간 맥도날드 아침 메뉴 판매 시간대 매출은 출시 전 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

롯데리아도 일부 매장에서 조식 메뉴를 판매한다. 베이컨햄에그본과 에그샐러드 번으로 단품 가격은 각각 3600원, 3300원이며 커피가 추가되는 조식 콤보는 각각 4200원, 3900원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상업지 일부 매장에서 테스트 운영 중으로, 희망 점포에 한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월드컵 키오프… “집관족 잡아라”

CU, 손흥민 모델로 대규모 마케팅
GS25 ‘원소주 스피릿 특별 패키지’
홈플러스, 델리·베이커리 반값 할인

유통업체가 21일 개막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맞춰 마케팅 총력전에 나선다. 편의점 CU는 이달 초부터 손흥민 선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 직관 투어 스탬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보름 동안 1만 명이 넘는 응모자들이 몰려 2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손흥민 선수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한 CU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차례로 펼친다.

GS25는 원스파리츠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3종의 ‘원소주 스피릿 특별 패키지’를 선보였다. 패키지는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의미인 ‘위브얼 레디원’, ‘승리를 위하여,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

을 담았다. 세븐일레븐도 대회기간 치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할인 이벤트를 연다. 최근 출시한 ‘만쿠만구치킨’을 우리나라 경기가 열리기 이전인 23일까지 하나 카드 결제 시 20% 할인한다.

홈플러스는 집관족을 겨냥한 ‘응원 먹거리’를 선보인다. 인기 델리와 베이커리를 최대 50% 할인하고, 베이커리 ‘몽 블랑제’는 ‘집관 응원 야식 대전’을 통해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생크림모카번 6입과 식사빵베스트팩을 23일까지 30% 할인 판매한다. CJ온스타일도 집관족을 위한 인기 상품을 집중 편성한다. ‘한신포차 낙지볶음’, 유튜브 ‘시니’,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 함께 식품 방송을 선보인다. 또한 서울드래곤시티호텔은 스카이킹덤 31층 ‘킹스 베케이션’에 가로 6.8m, 세로 2.7m의 초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조별리그 세 경기를 생중계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대장동 핵심’ 남욱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지분”

석방 후 첫 재판 폭로전 가세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 30% 차지
“유동규, 높은 분들 드려야 한다며 뇌물 3억5000만 받아가” 진술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며 “김만배 씨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첫날부터 폭로전에 가세한 것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표실 정부조정실장이 잇따라 구속된 데다 한 달 전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날 선 폭로에 이어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들었다.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남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 변호사가 이 대표 측의 지분이라고

주장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회사로 1200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당초 이 회사는 김만배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소유주가 누군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1년 전 수사 당시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구체화하기 전인 2012년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김태년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대

장동 개발이 민관합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김 씨가 이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당내 영향력이 있는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이자 전직 기자였던 배 모 씨에게 2억 원을 받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돈이 실제로 김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억 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 남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뇌물 3억50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김용과 정진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는 2014년 5월 김만배 씨가 강한구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4000만 원을 제공한 이유를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가 이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을 대기 위한 일환으로 강 의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용산소방서장·전 용산서장 출석



최성범(왼쪽) 용산소방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취업제한 어기면 벌금형”... 성범죄자 처벌 강화

현행제도, 행위자 관련 처벌 없이 기관 해임·허가취소 요구만 가능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도 확대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유치

원과 어린이집, 학교, 학원 및 개인과외, 청소년 관련 시설, 경비업체, 체육시설, 의료기관, 대중문화기획업체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관련 기관에게 위반 당사자 즉시 해임, 기관 폐쇄 및 등록·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위반 당사자에 대한 처벌책은 따로 없었다.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는 2020년 79건, 2021년 68건 등으로 꾸준히 적발돼 왔다. 이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법률로 특정하기 어려운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은 여가부 장관이 해당 기관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해 출소 후 정보공개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신상정보 공개 중지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

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도 포함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제49조를 개정하는 계획을 연내 법제처에 제출하고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벌금형은 타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내년 1, 2월 중 정부입법 예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꽃 기자 pgot@

보복 목적 흉기 쏜 70대 징역 1년 6개월

법원 “동종폭력 전과 다수”

지인과 시비를 벌인 뒤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흉기를 쏜 70대 A 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은 A 씨가 다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월 11일께 서울 동작구에서 평소 같이 일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자 술을 마시다 오후 9시 20분께 경찰에 “내가 나이가 70살이나 됐는데 술을 마시던 3명으로부터 턱을 맞아 집에 돌아왔다”고 신고했다. 지인에게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이 무마됐다고 생각했다. 이후 집에 있던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지인들이 있던 곳으로 이동하던 중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이 그를 발견했고, 주머니에서 과도를 발견했다. A 씨의 폭력적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2월 9일에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지인의 복부를 향해 겨누는 등 특수협박으로 기소됐다. 2월 3일에는 ‘친구가 오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 씨 친구가 집 안에 무사히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소란을 피웠다. 법원은 A 씨가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칼을 피해자 복부에 겨누면서 협박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 전통시장 신선식품 주문한 날 바로 즐기세요”

청량리·암사·노량진 MFC 조성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개시

앞으로 전통시장에서도 당일·묵음·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직배송을 통해 신선한 품질의 제품을 받아보고, 상인들은 온라인 배송과 판로 확보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서울시는 청량리종합시장·암사종합시장·노량진수산시장 3곳에 소규모 물류시설(MFC) 조성을 완료하고 이달 22일부터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는 시장 내 MFC, 디지털 물류시스템 등 물류 기반시설 구축해 시장 내에서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하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전화나 수기로 주문이 관리됐다면,

이제는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돼 시장 내 물류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해 소비자들은 당일배송, 새벽배송, 묵음배송 등 다양한 배송유형을 이용할 수 있다. 배송 지역은 서울 전역부터 및 경기도 일부다. 소비자는 시장을 방문해 배달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시장 전체 물량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배송

함으로써 배송단가는 기존보다 약 30% 이상 저렴해진다. 예를 들어 청량리종합시장 의령상회에서 과일 상자 1박스를 사면 6000~7000원의배송비를 개별적으로 내야 했지만, 우리시장 빠른배송으로 1박스당 4000원으로 일괄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우선 오프라인 주문에 대해 빠른배송 서비스를 지원한 후, 12월부터 온라인 주문으로 빠른배송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 플랫폼은 네이버, 당근마켓 등 기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해 주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채민 기자 chaebi@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해요



선한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 같이 힘내요 🦵🦵

매년 더 뜨거워지는 지구를

우리 같이 지켜요 🌍🧐

e스포츠 국가대표팀과

우리 같이 뛰어요 🏀🏀

원하는 차 쉽게 만나도록

우리 같이 모여요 🚗🚗



혼자서는 못 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동네 선한가게 지원



탄소중립 추진 및 ESG금융 지원
플랜 제로 100



새로운 감동이 될
e스포츠 국가대표팀 후원



은행, 카드, 캐피탈의 힘을 모은
우리WON카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방탄소년단, 'AMA' 2관왕...5년 연속 수상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팝 듀오 그룹’ 4년 연속, 신설된 ‘K팝 아티스트’ 첫 수상
남은 건 ‘그래미’ 뿐...내년 2월 시상식에 3개 부문 후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 American Music Awards)’에서 새 역사를 썼다. 팝 듀오와 K팝 아티스트 부문 2관왕을 거머쥐며, 5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

방탄소년단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페이버릿 팝 듀오 오어 그룹(Favorite Pop Duo or Group)’과 ‘페이버릿 K팝 아티스트(Favorite K-Pop Artist)’ 두 부문을 수상했다. 2017년 K팝 그룹 최초로 AMA 무대 공연을 펼친 방탄소년단은 이듬해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Favorite Social Artist)’ 부문 수상을 시작으로 5년 연속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페이버릿 팝 듀오

오어 그룹’ 부문에서 콜드플레이, 이때진 드래곤스, 모네스킨 등을 제치고 4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부문 4회 연속 수상은 1974년 첫 시상식 이래 최다 기록이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신설된 ‘페이버릿 K팝 아티스트’ 부문 수상자로도 선정됐는데, 여기에는 블랙핑크와 세븐틴, 트와이스 등 ‘K팝 간판’이 함께 도전했다.

이제 방탄소년단에게 남은 도전은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뿐이다. 내년 2월 열리는 이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뮤직비디오 △앨범 오브 더 이어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라가 있다.

팬심을 반영하는 AMA, 빌보드 뮤직



방탄소년단이 ‘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오르며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시상식에는 멤버 진의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공연 등으로 인해 불참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시어터에서 열린 AMA에 참석한 방탄소년단의 모습. AP뉴시스

어워즈와 달리 그래미는 회원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비영어권 가수를 배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미가 지난해 논란이 된 비밀 선정위원회

를 폐지하며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멤버 진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상이 그래미”라며 “아직도 못 받은 상이 있으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선현 기자 sunhyun@

LG유플러스, 6G 안테나 기술 개발
전파방송기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권준혁(왼쪽)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부장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무총리상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차세대 이동통신 안테나 기술인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을 개발하고 실증한 성과로 제23회 전파방송기술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술은 ‘지능형 거울’로 불리는 기술이다. 건물 외부 신호를 실내로 투과하거나 반사시켜 이동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력 소모 없이도 전파효율을 높일 수 있어 통신망 운영 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금융권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독거노인·영세가정에 21만여장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과 연탄은행 홍보대사인 배우 정애리 씨가 21일 백사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에 나섰다. 21일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권 참여기관은 이날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21만5000장을 기부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 중 연탄 6000장을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예비신부’ 리디아 고, LPGA 최종전 우승

올해의 선수·상금순위 1위·최저타수상 휩쓸어 ‘3관왕’
내달 30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아들 정준 씨와 결혼

리디아 고(25·뉴질랜드)가 21일(한국 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했다. 다음 달 결혼하는 ‘예비신부’인 리디아고는 LPGA 올해의 선수·최저타수상·상금왕 등 전관왕에 올랐다.

리디아 고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7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를 엮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2위 리오나 마과이어(아일랜드)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차관보 관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김정희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김성배 ◇과장급 전보 △문화재정책국 발급제도과장 김동대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장 박윤정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황인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용 △기획운영이사 김영중
◆대신파이낸셜그룹 〈대신통권〉 ◇상무 신규 선임 △동부WM부문장 김경렬 △

부음

▲양기철 씨 별세, 양두호(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팀장)·현정(구갈중학교 교사)·윤호(서부발전 과장) 씨 부친상 = 20일,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설, 발인 22일 오전 9시 30분, 064-717-2900
▲임연수(전 우진산업 사장) 씨 별세, 임선희·선아 씨 부친상, 홍용표(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통일부 장관)·최원균(KRTC 이사) 씨 장인상 = 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2일

리디아 고는 이 날 우승 상금 200만 달러를 추가해 시즌 상금 436만4403달러를 기록하며 상금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회 전까지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 150점으로 2위 이민지(호주·149점)에 1점 앞섰던 리디아 고는 우승으로 30점을 추가하며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하게 됐다. 시즌 평균 타수 68.988타를 기록하며 최저타수상인 ‘베어 트로피’도 2년 연속 차지했다.

한국 여자골프는 16개 대회 연속 무승에 그치며 올해 4승을 합작하는 데 그쳤다.

한편, 리디아 고는 12월 30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 정준 씨와 결혼한다.

기정아 기자 jjonga1006@



리디아 고(왼쪽)가 LPGA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약혼자인 정준 씨와 함께 올해의 선수상 트로피, 최저타수상 트로피,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네이플스(미국)/AFP연합뉴스

Club1962센터장 김광혁 △기업금융담당 박석원 △비서실장 김성규 △WM추진부부장 최광철 △고객자산부문 부부장 최대경 ◇이사대우 신규 선임 △정보보호부부장 정희민 ◇상무 전보 △금융소비자보호부부장 김상원 △재경1WM부부장 신재범 △디지털부부장 강준규 〈대신택축은행〉 ◇신규 선임 △대표이사 노명문 △디지털금융본부장(상무) 박현식 △준법감시인(이사대우) 진덕현 〈대신폐프앤아이〉 ◇상무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조상규 〈대신헌자산운용〉 ◇상무 전보 △마케팅&지원그룹장 이동수 〈대신헌자산신택〉 ◇상무 신규 선임 △리스크관리부부장 장중

식 △경영지원부부장 김동훈 ◇이사대우 신규 선임 △리츠투자부부장 박영근 〈대신폐이엠씨〉 ◇상무 신규 선임 △자산관리본부장 오규택 〈대신폐라퍼티〉 ◇상무 신규 선임 △사업총괄 신재현

◆애경바이오팜 ◇대표이사 전무(승진) △이훈규

◆삼천리그룹 ◇삼천리 △전무 김태석 △이사 김준호 ◇삼천리모터스 △대표이사 서광영 △전무 남호상

◆SNT모티브 ◇승진 △경영지원본부 상무 박종길 △모빌리티사업본부 모빌리티개발담당 상무 안재준 △특수사업본부 특수영업담당 이사 손주현

故 유일한 박사 ‘기업거버넌스 대상’
KCGI, 5개 부문 수상자 10명 시상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사진〉 박사가 한국기업거버넌스 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1일 KCGI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1회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5개 부문(부문당 대상, 혁신가상)에 걸쳐 10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유박사는 국내 최초의 모범적인 기업 거버넌스를 확립한 것을 인정받아 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혁신가상은 천준범 당근마켓 부사장이자, 천 부사장은 기업, 로펌을 오가며 경험한 다양한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미국 반독점법 이야기’, ‘초기기업의 시대’ 등 저서를 집필한 것을 인정받았다.

자본시장 부문 대상 수상자는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다. KCGI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2013년 만도의 한라건설 편법 지원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점, 대립산업에 대한 배당 정책 가이드라인 요구 등을 높이 평가했다. 동 부문 혁신가상 수상자는 이창환 알라인파트너스 대표로 SM엔터테인먼트 주주 총회에서 독립적인 감사 후보를 선임한 점을 인정받았다.

학술 부문 대상 수상자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다. 김 교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의 효과, 기관 투자자 주주 행동주의의 효과, 지배권 보호장치 도입의 폐해 등을 연구했다. 동 부문 혁신가상 수상자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치/법률 부문 대상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혁신가상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수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애경그룹 지주회사 AK홀딩스
‘재무통’ 백차현 대표이사 선임

애경그룹 지주회사 AK홀딩스는 21일 전 애경자산관리 투자부문 백차현〈사진〉 대표이사를 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백 선임 대표이사는 1992년 애경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20년 AK아이에스 투자부문 대표이사까지 28년간 애경그룹에서 근무한 애경통이다. 특히 재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며 변화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던파’ 흥행 이끈 윤명진 이사
네오플 선임 대표이사에 내정

‘던전앤파이터’(던파) 전성기를 이끈 네오플의 윤명진〈사진〉액션스튜디오 이사가 선임 대표이사에 오른다.

네오플은 21일 선임 대표이사로 윤 이사를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윤 내정자는 2008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14년 던파 개발실 실장, 2017년 액션스튜디오 실장을 거쳐 지난해 액션스튜디오 이사 및 총괄 디렉터를 역임했다. 그는 ‘던파’ 국내외 라이브 서비스는 물론 ‘던파’ IP 신작 게임의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미래토크



윤 기 영
외국어대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소진된 혁신역량이 위기다. 그 위기의 중심에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으니, 청년이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니 창업과 혁신에 투자할 돈과 거기에 몰입할 의욕이 말랐다. 현재의 부동산 위기를 한국사회의 근본 위기를 극복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한국사회에 큰 주름살을 안기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부도의 위험에 처했고, 앞으로 더 많은 건설사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상당한 이익을 얻던 금융기업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많은 가게가 가난해질 것이고 일부 가게는 파산에 몰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그런데 금리가 안정화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내년 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어도 그것이 곧 기준금리 하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고금리는 유지될 것이다. 높은 금리로 경기침체 부작용이 커진다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저금리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2030년까지의 중기 미래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세계질서의 다극화, 국가자본주의에 따른 글로벌 경제체제의 혼란스러움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부담은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증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만 오를 수 없다. 일부 전문가는 여전

히 부동산 대세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중기 미래에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2030년 이후의 장기 미래다.

우리를 둘러싼 메가트렌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미래를 어렵게 한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의 메가트렌드는 부동산 경기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일본보다 가파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91세, 남성은 84세로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 이에 반해 한국사회의 출산율은 2022년 2분기 0.75에 불과하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보다 낮다. 일본의 빈집보다 한국사회의 빈집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기후변화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도시의 위기를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화석연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행은 더디기만 할 것이다. 이는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을 더욱 높일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고층빌딩에 대한 선호를 낮출 것이다. 고층빌딩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해 전기를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단열재를 쓸 수 없게 하여 난방비 지출을 늘린다. 식량안보의 필요성은 도시 농업의 가치를 높이며, 탄소배출 0의 빌딩과 도시는 기존 도시의 재편을 강제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대도시가 주는 편의를 모든 중소도시와 농촌에도 허용할 것이다. 2030년 이후의 무인자동차, 로봇 및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은 중소도시와 농촌 거주를 대도시 거주보다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완전한 무인자동차는 24시간 대중교통체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무인자동차와 로봇은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로 굳이 대도시에 거주할 필요성을 줄일 것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실재(Virtual Presence) 기술을 가능하게 하여, 일자리에 있어서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출근한 것과 다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의료 사물통신과 의료용 인공지능, 약품 배송자동화 등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의료격차를 확연히 낮출 것이다.

이밖에도 도시노후화, 원격근무의 법제화,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에 대응하기 위

한 식량과 에너지 자급자족형 도시의 출현도 기존 도시에서 탈출하여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이주하게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거의 모든 메가트렌드가 부동산 경기를 어렵게 한다. 도시화율이 90%가 넘으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웅기종기 몰려 사는 한국사회의 미래는 오히려 역도시화로 진행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기후변화가 이를 강제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큰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소진된 혁신역량이 위기다. 그 위기의 중심에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으니, 청년이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니 창업과 혁신에 투자할 돈과 거기에 몰입할 의욕이 말랐다. 현재의 부동산 위기를 한국사회의 근본 위기를 극복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욕망의 단절이며,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회적 상상력과 용기다.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미신, 관념과 신념을 바꿔야 할 때다.

정책발언대



강 선 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난민의 사전적 정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 중에서도, 그것도 나이가 아주 어린 난민이 있다. 바로 소아재활 치료를 위해 전국을 떠도는 ‘어린이 재활 난민’이다.

뇌성마비가 있는 열한 살 딸의 재활치료를 위해 한 어머니는 원주에서 서울로, 또 한 번 서울에서 서울재활병원 근처로 이사를 거듭했다. 사실상 온 가족이 세 번이나 이사를 한 것이다. 그 고생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이가 걸어서 학교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꾸준한 재활 덕분에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기뻐하셨다.

이 작은 희망을 찾아 기꺼이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옳은 이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 아닌 이별을 택하는 이들. 이 모든 가

슴 아픈 사연이 모인 구호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때, 문재인 후보는 ‘전국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설치’를 공약했고 당선 후 곧바로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소위 돈벌이가 되지 않은 소아재활치료가 민간이 나서 질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재활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였다. 2018년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에 병원과 센터 10곳을 만들기로 했다.

포부는 원대했으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아이를 치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에서 정부가 아무리 공모를 해도 선뜻 손을 들고 나설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론회를 열었고, 의원 모임을 만들었고, 정부의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약자를 농친 약자복지

이토록 재정당국과의 길고도 지난한 싸움에서 결국 ‘어린이 재활난민’은 승리했다. 정부는 적절한 전담인력 확보와 재활체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여러 조건을 요구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게 향후 3년 동안 필수인력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지난해 수도권에서 서울재활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두 곳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한숨이 트이겠다’라는 기대는 잠시였다. 2021년 첫 지정 이후 3년째인 내년도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이다.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약자복지’를 대대적으로 공언했던 윤석열 정부였기에 배신감도 더 컸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활치료가 간절한 장애아동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의 ‘약자’가 아닌지 따졌다. 왜

당초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냐고, 이제 누가 정부 말을 믿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되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지원하면 되지 않겠냐”며 “애초에 문제 제기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설명대로라면 ‘다소 안일했던 기재부와 복지부 실무진의 판단 착오’라는 것인데, 이렇게 ‘약자를 농친 약자복지’가 어떻게 ‘약자복지’일 수 있겠는가.

정부의 반복된 약속으로 병원은 기껏 늘려놓은 필수인력을 유지할 인건비가 없어 당장 사람을 내보내야 할 상황에 처했고, 길게는 수년을 기다린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야 할 위기에 빠졌다. 수년에 걸쳐 쌓아온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진 셈이다. 약속은 지켜야만 약속이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라는 구호가 공허한 헛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애비게일 애덤스 명언
“배움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성실로 추구해야 한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의 어머니이자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아내다. 어릴 때 몸이 아파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해 독학한 그녀는 박식했다. 백악관에 거주한 최초의 영부인인 그녀는 남편에게 1100여 통의 편지를 써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정치적 조언도 많이 해 ‘미세스 대통령’으로 불렸다. 여성 인권신장에도 앞장선 선각자였던 그녀는 지독한 남녀차별로 여성은 교육조차 못 받던 18세기 말, 헌법에 남녀평등을 명시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녀는 오를 태어났다. 1744~1818.

☆고사성어 / 오유지족(吾唯知足)
‘나 스스로 오직 만족함을 안다’라는 말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자신에 대해 만족하라’라는 불가(佛家)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釋迦牟尼)가 열반(涅槃)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으로 남긴 유언으로 ‘유교경(遺敎經)’에 나온다. “족(足)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다[不知足者雖富貧 知足知人 雖貧而富].” 흔히 네 글자에 모두 들어간 입 구(口) 자를 가운데 쓰고 나머지 네 글자를 상하좌우에 써서 한 글자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시사상식/비가치재(demerit goods)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대평가된 데 반해 소비로 인한 비효용 또는 고통은 과소평가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술 이외에 마약, 담배, 매춘 등이 대표적인 비가치재다. 정부는 이들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속담 / 밥 한술에 힘 되는 줄은 몰라도 글 한 자에 힘이 된다
‘배우는 것이 힘이다’란 뜻.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유 혜 림 / 정치경제부

지난주 용산경찰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 작년과 달리 올해 작동되지 않은 ‘행정의 부재’를 살펴보기 위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2021~2022 헬러원 대책 회의’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이었다. “용산구에서 한 회의는 용산구에서 만든 거잖아요. 생산기관에서 받으시는 게 맞으니까...”

어쩌면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산 기관이 아니라서 공개하지

행정을 대하는 태도

얇을 뿐 회의 자료는 경찰서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용산경찰서는 직접 주재한 회의 자료에 한해서 부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외는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참석한 회의 기록도 없이 어떻게 안전 대책 계획을 수립한단 말인가. 구청발 자료가 없더라도 경찰 자체 문서라도 있어야 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다. 생산 기관이 아니라서 비공개인 것인지, 다른 부서에도 자료가 없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했다. “저희가 어떻게 뒤적뒤적하면 거기서 받았던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담당 경찰관의 난

처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 1시간 뒤 그는 다른 부서 역시 자료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참사 당시 작동되지 않았던 상황실·무너져 버린 보고 체계, 행정의 부재가 속속 드러나는 오늘날이다. 자료를 찾아도 새로 취합·가공해야 하니 거절했으리라 믿고 싶은 심정이다.

‘부분 공개’라도 받았으니 만족해야 할까. 용산구청은 본지 요청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수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들며 “자료가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구청은 과거 공개됐던 이태원 헬러원 회의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구청의 결정은 이태원 참사를 ‘단순 사고’로 규정하고 그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아픔은 또 반복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비판은 행정 기관만을 향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직전 안전 문제를 경고하는 기사는 한 곳도 없었다는 지적 역시 빼아프게 반성한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아닌 ‘안전한 일상’을 모색하는 정치를 기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물어야겠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

wiseforest@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편집국장 박성호		주소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02)784-1003 팩스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6701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44	부동산부	(02)799-2625		산업부	(02)799-2663
		미래IT부	(02)799-2665	중소중견부	(02)799-2637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관치금융과 오너경영

“과거처럼 정부가 금융사 CEO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는 힘들어도, 현 CEO의 연임을 막거나 특정 인사가 CEO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치(官治) 논란에 대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얘기다. 관치 금융 논란이 커진 건 김지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자녀 부당 지원 의혹으로 조기 사임한 데 이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사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정고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는 관치 금융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불러모았다.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것은 윤석현 전 원장 때인 2019년 5월 이후 약 3년6개월 만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 원장은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후임자 물색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의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 구조에 대한 감독 활동’ 차원이

데스크칼럼

송영록
금융부장



라며 선을 그었지만, 금융사 인사철에 이사회 의장을 소집해 CEO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건 ‘당국의 지시를 따르라’는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로 보는 게 더 맞다.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사 CEO 자리에 정부의 낙하산이 내려올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이 팽배한 이유다.

특정 인사를 내려보내지는 못해도 연임은 막을 수는 있다는 당국의 메시지도 엿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라임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소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돌려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차기 회장 선출에 들어간 BNK금융지주와 손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진 우리금융의 수장 자리를 두고 이미 물밑경쟁은 치열하다. 우리금융의 경우, 임종룡 전 금융위

원장 등 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다. 임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장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때는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우리금융 내부 출신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를 밝혔던 이들도 거론된다. BNK 회장 후보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반대인 전 부산은행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들에 대해 금융권에선 “올드보이 중에서도 올드보이들”이라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후임에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가 유력시된다. 거론되는 인사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다.

은행은 주인이 없는 회사다. 특정 대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안전장치를 해 놔다. 그 덕에 지배구조는 투명해졌지만, ‘관치’라는 ‘외풍’에 항상 흔들려 왔다. 최근 수년간 주요 금융그룹 CEO들은 오너처럼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경영에 나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그 덕에 연임에도 성공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그룹 성장을 이끌었던 점에서 금융 선진화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반면

금융사 CEO로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은 비전확립과 경영 혁신보다 정부와 정치권 동향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자리를 내어준 데 대한 보은 차원이다. 훗날 자리보전을 위해서도 권력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금융그룹은 디지털금융, 글로벌 확장 등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 본인의 안위보다는 주인의식을 가진 CEO들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은 자신이 쓴 ‘조격차’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견희 회장의 목심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한국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했던 그의 기업가정신이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너경영의 장점을 잘 표현한 설명이다. 권 고문은 전문경영인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이 생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syr@

조에린의 글로벌 혁신

미국 뉴스쿨 학장·
파슨스 디자인스쿨
경영학과 중신교수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 거의 기정사실이 된 듯하다. 경제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위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며 발전하기는 하지만, 소비심리 위축이 소비위축 행동으로 넘어가면 빠져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활동 효율이 더욱 중요한데, 특히 마켓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니즈가 집중 반영된 생산과 브랜딩 활동이 더욱 그렇다. 여기서 마켓에 대한 이해란 반드시 지금 당장 무엇이 왜 요구되는지에 관한 분석과 대응도 중요하지만, 조금 앞서가서 향후 5년 또는 10년 뒤의 변화를 함께 그려가야 하는 것이 경제위축 상황에서 더욱 요구된다는 뜻이다.

이런 근시적 거시적 그림을 그릴 때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인구동향과 성향이다. 전체 인구가 늘고 줄고를 떠나 소비의 주축이 되는 세대와 그 움직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거시적 그림에서는 미래 경제활동의 주축이 누구이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 결정적이다.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Z세대(Z Generation)를 다룬 것도 이런 맥락이다.

모든 세대가 그다음에 따라오는 세대를 이해 못 하겠다는 불평을 한다. 모든 세대

는 그 세대가 소위 ‘젊은 세대’였을 때 이전 세대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기성세대가 만든 현상을 거부하려는 노력들이 항상 있어왔다. 이런 갈등이 가장 심했던 관계가 X세대(Generation X)와 밀레니얼(Millennial)이 아닌가 한다. 아마도 인터넷이라는 존재하지 않던 플랫폼과 이로 인해 그들이 커가면서 익혔던 정보전달, 세계화, 소통과 문화형성 방법이 서로 많이 달랐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이런 선상에서 흔히 Z세대는 밀레니얼과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히 이해해야 하는 차이는 두 세대가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정도다. 특히 미국의 Z세대는 환경문제에 특별한 걱정과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이 기존 세대가 마구 뒤집어 놓은 문제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회정의, 기회의 평등, 인종문제, 각종 차별 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뿌리 깊은 인종문제, 이민문제, 너무도 비싼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격차, 부(wealth)의 세대 유지, 그리고 그로 인한 특권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사회다.

인터넷은 이런 불합리한 사회문제를 드러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거의 태어나면 서부터 인터넷을 소통수단으로 자라온 Z세대는 이런 사실들에 아주 어릴 적부터 노출되었다. 비교적 상승경제곡선에서 가

Z세대 트렌드 읽기

진 것 없이 시작해도 재산축적이 가능했던 베이비부머(Baby Boomer)가 부모인 밀레니얼과는 달리, 9·11 테러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정치상황과 기득권의 잘못으로 휘청거렸던 X세대가 부모인 Z세대는,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나약하고 위태롭게 사는지를 보며 컸다. 이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존 사회구조와 경제구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그 어느 세대보다 더 느끼고 분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다시금 어두어지는 세계경제의 시작점에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에 기존 세대, 기존 방식, 기존 사회문화에 대한 반발이 그 어느 세대보다 크다. 더불어 인터넷은 이들에게 집단행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테크놀로지가 거의 자기 피부 같은 이 세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은 사회기관이나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떤 세대보다 크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Z세대는 밀레니얼보다 가치와 태도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현저히 크다. 중국의 Z세대가 한 달 벌여 한 달 살기에 소비성향이 크거나 돈에 대해 전혀 걱정 없이 소비를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면, 미국의 Z세대는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사실 미국의 Z세대는 같은 나이의 그 어떤 세대보다 저축을 많이 하고 빚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예를 들어 Z세대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나 물

으면 대학을 빚 없이 졸업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미국이 저축이라는 관념 없이 미리 끌어다 쓰는 신용과 소비가 경제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으로 커온 나라임을 생각할 때 상당히 다른 성향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Z세대는 중국의 Z세대에 비해 그리 브랜드에 집착하지도 않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별로 없다. 중국의 Z세대가 명품시장을 움직이는 다크호스인 반면 미국의 Z세대는 브랜드의 이름보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브랜드를 선택하는 성향이 크다. 이에 브랜드가 제시하는 톱다운(top-down) 트렌드보다 자신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으로 트렌드를 만든다. 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아메리칸이글(American Eagle) 최고마케팅책임자(CMO)의 인터뷰 중 가장 인상에 남았던 표현이 “성공의 비결은 내려놓는 것(let go of control)”이라는 거였다. 인터넷이라는 소통도구의 특징이 글로벌 문화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의아한데, 아마도 서구에서 주류인 소셜미디어가 중국에서 통하지 않고 중국의 주류 플랫폼이 미국에서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듯하다. 현 정치경제 상황을 볼 때 이런 차이점이 앞으로도 별로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중국과 미국은 현재도 미래도 한국에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이기에 앞으로는 더욱 확연히 다른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진료실 풍경

마지막 소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께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폐암 말기로 진단받은 그분은 이미 죽음을 인지하고 계셨던지 마지막 소원이라며 애절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가능하면 들어드릴게요.”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철부지 짓을 좀 했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어울려 등 쪽에 문신을 새겼는데 그걸 지우고 싶어요.”

“왜 진즉에 지우질 않고 이제와서...?”

“그동안은 삶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문신을 떠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죽고 나면 염을 할 텐데 문신이 맘에 걸려요. 제 딸애한테는 못났던 아빠의 과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다. 호흡근란이 심한 상태에서 그것도 우리 병원에선 할 수 없는 피부시술을 받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께선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셨고 식사까지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 없이도 살아온 분이 그깟 문신이 무슨 대수라고. 어휴! 몸 상하기 전에 식사라도 좀 하세요.”

구슬리고 달래기를 며칠, 그동안 할머니의 끈질긴 설득으로 다행히 그분은 고집을 꺾으셨지만 그래도 회진 때면 늘 내게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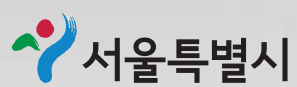
그런 일이 있던 지 얼마 후 할아버지께 육장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옆드리게 한 후 등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어떤 문신이나 젊은 날의 잘못에 대한 표식이 아니었다. 그저 반복적으로 굵히고 헤어진 상처 위로 생긴 노을처럼 붉고 두꺼워진 할아버지의 피부뿐.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등에 짐을 지고 나른 탓에 새겨진 아버지로서의 무게만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난 그분의 등 사진을 찍어 할아버지께 보여 드렸고 말없이 미소 짓던 환자분께선 며칠 후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요즘 유독 포털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자기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감추고 왜곡하기 바쁜 그들. 죄책감조차 못 느낄 정도로 두꺼운 철판이 깔린 그들의 얼굴에 덧대어 내 눈앞엔 오래전 문신을 지워달라고 마지막 소원을 말 씀하시던 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그리고 오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난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고민해본다. 잘못이 잘못을 덮어 철보다 두꺼운 딱지가 얇은 쪽일까, 아니면 평생 선하게 사셨지만 오래전 잘못조차 지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할아버지 쪽일까.

가을은 제법 이른 저녁이 온다. 노을이 서서히 내려앉은 진료실 바닥엔 그 옛날 할아버지의 등에서 보았던 검붉은 세월의 흔적이 또렷이 새겨지고 있었다.

박관석 보령신제일병원장·내과전문의





반값으로 내 집 마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뭘길래?

땅값은 빼고 건물값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반으로 줄인 주택입니다.

*** 고덕강일 3단지부터 시작합니다. Coming Soon!**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서울 삽니다